

통합치료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박은선(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최명선(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선우현(명지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ryville University) 심혜원(한국상담대학교대학원)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송민애(연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유경훈(송실대학교) 정은정(명지대학교) 최정현(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문소영(명지대학교)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학제 간 연구위원회 : 최광현(한세대학교) 조민자(명지대학교) 양심영(송의여자대학교)

간 사 : 정혜전 강은혜

감 사 : 한영주(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노남숙(명지대학교)

〈차 례〉

-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영화 · 박은선 5
-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증례보고 -
양수아 · 문소영 41
- 학령 후기 아동의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
남보라 65
- 4, 5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주도 상호작용(CDI) 효과성 연구
임선자 · 선우현 89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121

<별첨 2> 투고규정 / 124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25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32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기표현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영화* · 박은선**

부천미술심리발달센터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미술치료 과정에서 자기표현의 변화과정과 치료적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단일사례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이주노동자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7세 여학생이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내적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척도와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동적 학교생활화(KSD), 동적 가족화(KFD)를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은 매 회기별 축어록과 작품사진, 치료일지, 연구자의 저널을 참고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축어록과 슈퍼비전 자료, 치료일지 등을 통해 자기표현의 변화과정과 치료적 경험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는 상징을 통한 자기표현이 다양한 감정 표현의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인 자기상과 관계 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의 미술치료 경험의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인식하다', '관계를 탐색하고 욕구를 만나다', '자신의 자원을 찾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다'의 4개 주제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언어적 자기표현을 하도록 돕고, 긍정적인 자기상과 미래상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핵심어 : 미술치료, 중도입국 청소년, 자기표현, 사례연구

* 본 연구는 임영화(2018)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박은선(sudhana2001@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8년 7월 12일 ■ 최종 수정일 : 2018년 8월 7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되었고, 1987년 이후 급격한 임금 인상과 3D 업종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김용권, 2015).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증가시키게 하였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출산, 혹은 부모가 한국으로 근로자 왔다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본국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 그리고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난민가정의 자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작하면서 본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의 남편 앞으로 입양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이주해오게 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임우영, 2016). 특히 중국과 몽골 출신의 경우 가족단위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한국사회의 적응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노충래, 홍진주, 2006; 박혜준, 2008).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의 국제이주를 경험한 청소년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 또는 한국인과 재혼한 이주여성 본국의 자녀들이다. 둘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들로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다. 셋째, 북한 이탈 청소년으로 이들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난 후 탈북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다. 넷째, 한민족 청소년으로 중국 조선족 청소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고려인 청소년들로 우리 민족의 해외이주로 형성된 대표적인 이주 배경청소년이다. 다섯째, 난민 가정의 자녀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들과 국내 거주 중인 난민들 사이에 태어난 난민 2세이다(박봉수, 2013).

현재 국내 중도입국자녀 중에는 특히 청소년 연령의 아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고 연령대의 학령기 청소년 또는 학령기가 지난 청소년이다(김흥기, 2015). 부처별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듯 집계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통계자료는 확인하기 힘들다. 안정행정부는 귀화자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자녀만 파악하고, 교육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만 파악하며, 법무부는 귀화자를 포함한 국민의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경우만 집계한다(김흥기, 2015). 이처럼 부처별 집계 대상 범위가 달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규모 파악이 힘들지만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9~24세 다문화 가정 자녀는 82,476명으로 그중 외국 성장 및 거주 경험을 가진 자녀,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39.2%(약 32,330명)로 추산된다. 연령에 따라 성장 배경별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 거주 경험 자녀들은 66.1%가 14세 이하로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반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은 18세 이상 자녀가 6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부모의 부름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과의 생활에 적응하고 낯선 언어와 낯선 문화의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된다. 중도입국자녀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들은 가족과의 분리 후 재결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임우영, 2016). 이와 함께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의 사회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고(이근매, 김경순, 2006; 정미영, 2016) 이러한 어려움 혹은 부적응으로 인해 자신의 장래의 지위나 거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임우영, 2016).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의 제한으로 인해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핸드폰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최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의 각 부처별로 지원정책이 시행되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가 일반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한국어 및 기본교과 교육과 문화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적응과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국 다문화 예비학교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초기적응을 위해 2009년부터 레인보우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흥기,

2015).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은 한국어교육, 컴퓨터 교육, 문화체험, 의료지원, 직업 교육 등으로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전민경,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이주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학업이나 진로와 같은 사회적응 지원은 사회적응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 초기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치유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 상담과 사례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연구에서 공통된 특성은 발달 심리적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분리로 인해 가족의 재결합 시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혼란을 겪는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다른 언어와 문화 적응으로 인한 어려움과 학업 단절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겪으며, 또래관계가 단절되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공통된 특성을 근거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박봉수, 김영순, 최승은, 2013). 둘째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습의 어려움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임우영, 2016). 셋째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의 사회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근매, 김경순, 2006; 정미영, 2016). 넷째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정응으로 인해 자신의 장래의 지위나 거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임우영, 2016). 다섯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방과 후의 학습 참여가 어렵다 보니 고립감, 외로움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핸드폰 게임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최연, 2012).

문리학(2008)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터넷 이외의 자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다른 활동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상태가 인터넷 중독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강제적으로 인터넷의 사용을 금하거나 줄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친숙한 활동으로 거부감이 적어 심리적인 접근이 용이하다(심연희, 2013).

미술은 비언어적 매개체로 통제를 적게 받으므로 자연스러운 창작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추어진 요소를 드러나게 하고, 자신의 숨은 능력을 발휘하여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이미경, 이근매, 2014). 미술치료를 통한 창조적인 작업과 작품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은 자아탄력성 증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내담자가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각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동안 많은 격려가 내담자의 역량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고 자기표현 능력에 대한 과거의 관점이나 신념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내담자가 미술치료사와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대인관계 능력이 증진되고, 그림을 재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며 제목을 붙이는 과정은 조절감을 얻도록 도와주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계영, 2017; Vance & Wabin, 2008).

더욱이 중도입국 청소년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대인관계에 위축되며,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발음이나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을까 불안해하며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류방란 외, 2012). 또 비자발적인 상담의 동기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치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청소년기의 방어적인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박계영, 2017; Vance & Wabin, 2008).

그러므로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의 하나로 제안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경우 다문화가정자녀나 이주노동자자녀에 포함되어 그것도 나이가 어린 아동들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처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표되고 있는데, 곽승주(2013)는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능력과 정서표현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임선숙(2014)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김정옥(2015)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현실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아탄력성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였다. 왕금미(2017)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심리정서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고영화(2017)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이 적응과정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현상의 복잡한 요인들과 이들 간의 관계성,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사례의 현재성에 주목하므로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에 적절하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과정에서 자기표현이라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도구적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기표현의 변화과정과 미술치료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를 경험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는 이들의 초기 적응 시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원체계로서 미술치료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가치를 갖는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표현의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치료에서 치료적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17세 여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 자녀이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 2017년 2월 10일에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다.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대부분 다문화 예비학교나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기간을 거쳐 공교육에 진학하나 연구 참여자는 적응기간 없이 입국 후 한 달 만에 한국의 일반학교에 입학하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위축되어 있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가족과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미술치료를 제안하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연구 참여자의 모와 경기도 소재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모와 5살 때까지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한국에 취업하시면서 12년 동안 조부모와 같이 살았다. 부모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왕래가 있었고 최근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1년 반을 같이 지냈다고 하며 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살던 연구 참여자를 안타까워하며 입국을 권유하여 한국에 와서 모와 같이 살게 되었다. 모는 48세로 자상하고 연

구 참여자와 대화를 잘 하는 편이고 부는 48세로 참여자와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오빠는 24세로 연구 참여자와 나이 차이가 있고 중국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에 한국으로 전근하여 가족이 모두 모여 같이 살게 되었다. 중국에서 같이 살던 조모는 66세로 잔소리가 많은 편이며 조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다고 하였다.

현재 연구 참여자는 학습 언어가 어려워서 학원은 다니지 않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한국어교육을 1주일에 한번 방문 수업으로 받고 있었다. 초기 면담시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모가 저녁 11시에 퇴근하시고 부는 아직 중국에 계셔서 하교 후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주로 핸드폰을 본다 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마르고 키가 큰 체형으로 초기 면담 동안 무표정하고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살짝 치켜들어 연구자를 뻔히 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듣기, 읽기, 쓰기의 수준은 ‘상, 중, 하’에서 ‘중’정도 수준이고 말하기는 ‘하’정도라고 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을 듣고 조금 이해하는 듯 보였으나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며 표현하였다. 단답형이 아닌 경우는 한글 단어로 적거나 긴 문장은 오래 생각하다 고모에게 중국어로 얘기하며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보였다. 그림 검사 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부감이 없어 보였고 주 호소 파악을 위한 중국어 버전의 자아탄력성 검사 시에는 익숙한 모국어 접하며 표정이 편안해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 호소는 초기 면담에서 한국어 소통과 학습의 어려움만 얘기하였지만 자아탄력성 검사를 통해 분석한 구체적인 주 호소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부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집과 학교에서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는 되나 말하기는 자신이 없어 하였으며 학교에서 또래들이 발음을 따라 하며 놀려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표현이 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하여 화가 나거나 힘들 때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 한국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오해가 생기면 감정을 풀지 못하고 참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무기력함과 불안감이 지속되며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료수집의 방법 및 절차

B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주배경 자녀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어와 미술치료를

지원하여 연구자가 미술치료 대상 선정부터 사전 준비를 거쳐 연구를 시작하였다. 미술치료 대상 선정을 위한 초기 면담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2주 동안 B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배경자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1명의 아동들을 4명의 연구자가 분담하여 B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하였다. 언어적 표현이 힘든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가 가능한 고모가 동반하여 통역 도움을 받았다. 초기 면담 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원사업 담당자와 회의를 거쳐 심리지원이 필요하고 미술치료에 참여 의지가 있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별 미술치료에 대한 사례연구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주 1회 50분, 총 19회기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절차는 이주노동자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연구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 4월 1일 대상후보 초기 면담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논의 후 청소년과 부모님 참여 동의를 얻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2017년 6월 3일 사전검사로 자아탄력성 검사, KHTP(동적 집-나무-사람), KSD(동적 학교생활화) 그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6월 10일에서 2018년 1월 18일까지 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하였다. 치료 중반 아버지의 입국으로 연구 참여자의 KFD(동적 가족화) 그림 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검사에 사전검사와 같은 자아탄력성 검사, KHTP, KSD, KFD 그림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2월 24일 추후 면담을 통해 치료 회기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였다. 이후 미술치료 회기별 축어록과 작품사진, 치료일지, 슈퍼비전 자료, 연구자의 저널 등을 활용하여 미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언어, 정서 및 행동 변화를 분석하였고 자아탄력성 검사, KHTP, KSD, KFD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심리평가에서 자아탄력성 검사는 연구 참여자가 한국어를 이해하나 언어적 표현이 어려워 연구 참여자의 내면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주 호소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림 검사(KHTP, KSD, KFD)는 자아의 환경과 심리상태의 조화와 가족과 학교에서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실시한다. 연구 참여자와 의사소통의 한계로 촬영 동의를 얻어 영상 촬영 및 녹음을 활용하여 치료 과정 회기별 연구 참여자의 언어, 정서 및 행동을 관찰 기록한다.

자아탄력성 검사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e Scale; ER)를 바탕으로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로 김정옥(2015)의 연구에서 중국어 번역된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

였다. 동적 집-나무-사람(K-HTP : Kinetic-House-Tree-Person) 그림검사는 Burns(1987)가 Buck(1948)과 Hammer(1969)가 개발한 동적 집-나무-사람(K-HTP) 그림검사에 대한 보완으로서 집, 나무, 사람을 각각의 종이 아닌 한 종이에 모두 그리게 하여 세 요소의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는 그림검사를 고안한 것이다. 동적 학교생활화(KSD: Kinetic School Drawing)는 Knoff와 Prout(1988)에 의해 개발된 학교생활화는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련성이 있는 학교에서의 인물, 즉 자신 친구들, 교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들과의 상호관계와 학업 성취, 개인의 성격과 태도를 알아내는 투사기법이다(홍승희, 2005). 동적 가족화(KFD: Kinetic Family Drawing)는 Burns와 Kaufman(1970)이 개발한 동적 가족화는 가족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Hulse(1951)가 개발한 가족화(Drawing a Family) 검사에 움직임을 첨가한 투사화의 한 종류이다(권기덕, 김동연, 최외선, 1993).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해석을 위해 연구자의 선입관과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료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에 관한 교육을 청강하고, 관련된 서적과 사례연구들을 찾아보며 지식을 습득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질적 사례연구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진행되며,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과정이다. 이 과정은 귀납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료들은 분류, 연합, 요약, 해석된다(권희정, 2017; Merriam, 1994)

질적 연구 전통에 따라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자료를 코딩하고 범주나 주제로 묶어 도식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상을 설명해 내는 과정은 모든 연구 전통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이다. Miles와 Huberman(2012)은 자료 분석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요약하였다. 첫째, 전사된 관찰일지나 인터뷰 전사본 자료 등을 살펴본 후 그중에서 초점을 정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는 자료 축소의 과정, 둘째, 자료를 축소시키는 것을 넘어 도식, 차트, 표 등으로 재조직하는 과정, 셋째, 도식화 한 자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이다(김나영, 이현주, 조성남, 주영주, 2011).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를 통한 자기표현의 변화과정과 치료적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회기별 축어록과 작품사진, 치료일지, 슈퍼비전 자료, 연구자의 저

널 등을 활용하여 미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언어, 정서 및 행동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아탄력성 사전·사후 점수를 분석하여 개인 내적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의 변화를 확인하여 미술치료 과정에 나타난 자기표현의 변화에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KHTP, KSD, KFD 그림검사의 사전·사후는 연구 참여자가 설명한 그림 내용에 대해서 내용분석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환경과 자아의 심리상태 및 관계성을 살펴보고 가족과 학교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분석한다.

Ⅲ.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주 호소는 초기 면담에서 한국어 소통과 학습의 어려움만 얘기하였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부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집과 학교에서 위축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는 되나 말하기는 자신이 없어 하였으며 학교에서 또래들이 발음을 따라 하며 놀려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면담에서 언어표현의 한계로 자아탄력성 척도를 통해 주호소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주호소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는 자기표현이 되지 않아 감정 기복이 심하여 화가 나거나 힘들 때 감정 조절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 한국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오해가 생기면 감정을 풀지 못하고 참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무기력함과 불안감이 지속되며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 개인 내적요인의 사전, 사후 점수는 각각 92, 93점으로 이는 점수 분포가 24-144인 점을 볼 때 평균점수 84보다 높아 평균 이상이며 사전, 사후에서 크게 점수 변화가 없다.

자아탄력성 사후검사에서 연구 참여자는 개인 내적요인의 8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감정과 충동조절,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요인은 점수가 증가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종교적 영성, 문제해결력, 공감과 수용, 의미추구는 점수가 큰 변화가 없다. 이 점수결과를 통해 많은 향상을 보인 요인은 감정과 충동조절이 4점 상승하여 정서적으로 감정기복이 사전검사 때보다 심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목표와 희망은 2점 상승하고 낙관주의는 3점 상승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문제해결력과 의미추구는 1점 하락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종교적 영성은 점수 변화가 없었다. 외적 보호요인에서

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기대 요인은 4점 상승하였고 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 부분은 사전검사와 비슷하며 학교에서의 돌봄과 기대는 1점 하락하고 학교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1점 상승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사전 검사 때 보다는 학급에서의 참여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의 돌봄과 기대는 점수의 변화가 없으며 가정에서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1점 하락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의사나 의지가 잘 반영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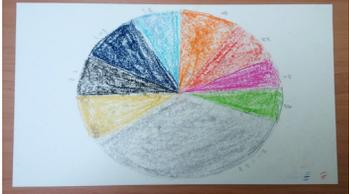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과정과 미술치료 과정에 나타난 자기표현의 변화를 미술 표현과 언어적 표현, 관계 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미술치료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미술치료 과정에 나타난 치료적 경험의 의미는 ‘지금의 상태를 인식하다’, ‘관계를 탐색하고 욕구를 만나다’, ‘자신의 자원을 찾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다’의 4개 주제로 요약하였다.

1. 미술치료 과정

〈표 1〉 치료 초기

	주제	첫 만남
	활동내용	천사점토를 탐색하며 긴장을 이완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1회기	작품사진	
		〈그림 1〉 자연
	주제	신체 도장을 이용한 자유화
	활동내용	면도 크림을 이용한 촉감 작업을 통해 긴장을 이완하기
2회기	작품사진	 
		〈그림 2-1〉 아기 〈그림 2-2〉 바다

〈표 2〉 치료 중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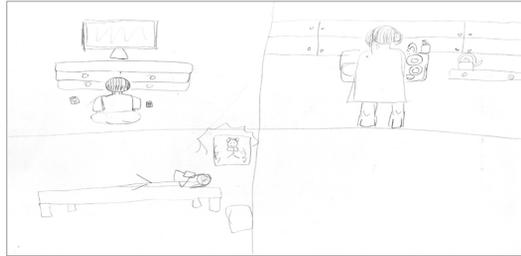
	주제	감정파이
	활동내용	감정 카드와 감정 파이를 통해 자신의 9가지 감정 탐색하기
6회기	작품사진	 
		〈그림 6-1〉 감정카드 〈그림 6-2〉 감정파이
	주제	감정표현 1
	활동내용	감정파이에서 탐색하고 싶은 감정 표현하기
7회기	작품사진	
		〈그림 7〉 혼란스러움
	주제	감정표현 2
	활동내용	감정파이에서 탐색하고 싶은 감정 표현하기
8회기	작품사진	
		〈그림 8〉 중국 호텔
	주제	분노의 공
	활동내용	습자지를 찢고 공을 만들고 과녁에 하고 싶었던 말 적어 공을 던지며 말하여 스트레스 분출하기
9회기	작품사진	 
		〈그림 9-1〉 NONO 〈그림 9-2〉 하고 싶은 말

	주제	친구
	활동내용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 탐색하기
10회기	작품사진	 <p>〈그림 10〉 친구</p>

〈표 3〉 치료 중기 2

	주제	내 마음 상자
	활동내용	치료사와 난화 돌려 그리기 및 다른 사람이 보는 외면과 내가 보는 나의 내면 표현하기
11회기	작품사진	 <p>〈그림 11〉 난화</p>
		  <p>〈그림 12-1〉 나(외부) 〈그림 12-2〉 나(내부)</p>

	주제	집에서의 나
	활동내용	자유화 돌려 그리기 및 동적가족생활화(KFD) 그림검사
12회기	작품사진	  <p>〈그림 13-1〉 워너원 콘서트(참여자) 〈그림 13-2〉 포도(연구자)</p>



〈그림 14〉 KFD 그림 검사

주제 학교에서의 나

활동내용 자유화 돌려 그리기 및 학교에서의 나 떠올리고 표현하기

13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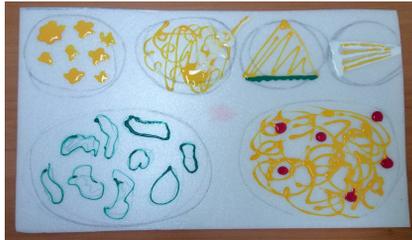


〈그림 15-1〉 학교(참여자)



〈그림 15-2〉 희망(연구자)

작품사진



〈그림 16〉 학교급식

주제 좋아하는 음식

활동내용 미니어처로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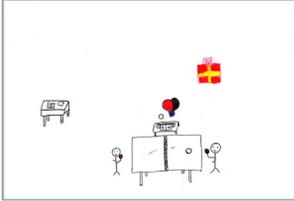
14회기

작품사진



〈그림 17〉 뿌듯한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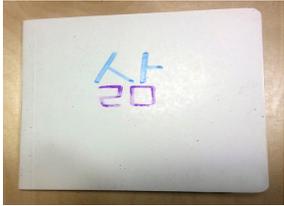
	주제	좋아하는 캐릭터
	활동내용	자유화 그리기 및 피치 캐릭터 만들기
15회기	작품사진	 
		<p>〈그림 18〉 상*고 정류장 〈그림 19〉 피치 캐릭터</p>

	주제	자유 작업
	활동내용	자유화 그리고 그 중 만들고 싶은 것 표현하기
16회기	작품사진	 
		<p>〈그림 20-1〉 자유화 〈그림 20-2〉 탁구</p>

〈표 4〉 치료 후기

	주제	촛대 만들기
	활동내용	자유화 그리기 및 촛대 꾸미고 새해 소원 표현하기
17회기	작품사진	 
		<p>〈그림 21〉 비오는 날 〈그림 22〉 꽃</p>

	주제	초 만들기
	활동내용	초를 만들며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하기
18회기	작품사진	
		<p>〈그림 23〉 힐링</p>

주제	앨범작업	
활동내용	지난 작품 사진을 돌아보고 앨범 만들기	
19회기	 <p>작품사진</p> <p>〈그림 24-1〉 삼(표지)</p>	 <p>〈그림 24-2〉 삼(내지)</p>

2. 미술치료 과정에 나타난 자기표현의 변화

가. 미술표현의 변화

형식적 측면에서 공간 사용이나 크기 면에서는 치료 초기에는 조심스러워하며 도화지를 작은 사이즈로 바꾸기도 하였으며, 공간을 다 활용하지 않고 작게 표현했지만, 밀도 있게 표현하였다. 색의 표현 면에서는 초반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붉은 노을 색을 표현하였고 중반에는 감정을 표현하며 혼란스러움은 회색, 분노는 검은색 등 부정적인 감정은 차가운 색으로 표현하였다. 후반에는 색을 절제해서 쓰는 모습을 보였다. 매체 사용 면에 있어 초반에는 연구 참여자가 색연필과 사인펜 외에는 재료를 거의 사용해보지 않아 연구자가 다양한 매체 경험을 안내하자 연구 참여자가 좋아하는 매체를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초반에는 물감과 파스텔 매체를 좋아하였고 중반에는 아이클레이 점토와 미니어처등 새로운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후반에는 자신이 다루고 싶은 매체를 얘기하며 아로마 초를 만들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치료 초기에 연구 참여자는 주제의 상징으로 바다를 많이 표현하고 노을 진 바다를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며 불안으로 인해 안정감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혼란스러운 감정을 탐색하며 다이빙대에 서 있는 자신을 표현하고 바다에 빠져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외로웠다고 표현하여 심리적으로 회귀하며 모성의 품과 같은 물이 정서적 안전 기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료 중기에는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분노의 공과 과녁을 통해 표출하였고, 관계를 탐색하며 친구와의 갈등관계를 과일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치료 후반에

는 자신이 힘들 때 활력을 주는 음식과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들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종결 즈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며 아로마 초를 드릴 엄마에게 카드를 쓰는 모습을 보여 모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HTP(동적 집-나무-사람)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집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으로 안전한 집이며, 자신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였다. 나무는 3살로 생기가 있고 자신과 친구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집과 나무의 간격은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나무와 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집은 나무로 지어진 지 1년 된 안전한 집이며, 자신과 엄마가 살고 있다고 하였다. 나무는 50살이고 안정된 상태이며 앞으로 계속 안정될 것 같다고 하였다. 사람은 나무 위에 앉아서 눈 감고 바람 쐬며 ‘내일 뭐 할까’ 생각하고 있고 하며 나무와 집과 사람의 간격은 적당하다고 하였다. Burns(1987)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사전검사에서 집, 나무, 사람 순으로 집을 먼저 그린 것은 생존의 욕구와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었고 사후 검사에서 나무, 집, 사람 순으로 나무를 먼저 그린 것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사 때보다 나무 기둥의 두께가 커져 심신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 강도가 강해짐을 보였다. 사전검사에 없던 나뭇가지가 많이 보여 환경이나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성취와 만족을 얻는 심리적 자원을 반영하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변화에 대한 소망, 이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전검사에서는 집과 나무의 위치가 좌측에 치우쳐 있어 자의식이 강하고 내향적 성향을 보이며, 나무와 집의 밀착은 생활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였다(이우경, 이원혜, 2012). 사후검사에서는 그림이 화면 위쪽에 치우쳐 있어 높은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공상에 치우치거나 자기 존재에 대한 불확실한 느낌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이선숙, 2016). 또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공통적으로 생략된 뿌리는 자신에 대한 불안정감, 자신 없음을 의미하지만(이선숙, 2016),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불안한 현실에서 자아의 힘을 키우며 적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K-HTP 검사 변화 비교

나. 언어적 표현의 변화

치료 초기에 작업에 대한 치료사의 질문에 침묵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어 신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느낌이 어떤지 물으면 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네” 또는 “좋아..”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작품 제목을 붙이거나 느낌을 표현할 때 주로 단어를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 얘기하며 모르는 단어는 핸드폰 번역 앱을 통해 보여주거나 긴 문장은 핸드폰 메모에 써서 보여주고 도화지에 적기도 하였다. 점차 치료사와 라포를 형성하여 목소리는 초기보다 들릴 정도였으며 “기분이 좋아요” 등 짧은 동사나 문장의 형태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게 얘기하였다.

치료 중반 여름방학 후 개학이 다가오자 위축되며 다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치료사의 질문에 자신의 마음과 다르지만 동조할 때 치료사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여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음식에 대한 작업을 하자 밝아진 모습으로 편하게 얘기하였다. 센터의 제안으로 참여했던 집단치료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그림에 대해 “비가 그치고 태양이 뜨는 날 이에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치료 후반에는 자신의 소원으로 “워너원 콘서트, 다이어트 성공하기, 공부, 돈, 한국어 잘하는 거”라고 하며, 원하는 가족의 상으로 “큰집, 엄마 일찍 퇴근.., 아빠 술 안 마시는 거”라고 얘기하여 긍정적인 자기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종결 회기에는 앨범 작업에 대해 치료 과정의 작품을 돌아보며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다 있는 거, 그런 거”라고 말끝을 흐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후 면담에서 작품사진을 통해 회기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밝

게 보이려고 어색하면 웃고 갈등이 있어도 참았는데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 관계 면에서의 변화

치료 초반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말은 이해하나 질문에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어 표현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그 외에 대답할 수 없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치료사를 뻔히 쳐다보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작업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읽어주거나 반응을 해주면 자주 미소를 지으며, 연구자에 대한 반응으로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대답을 하며 활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정을 탐색하고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 대한 분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연구자가 감정을 공감해주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 공을 던지자 연구자와 상호관계가 증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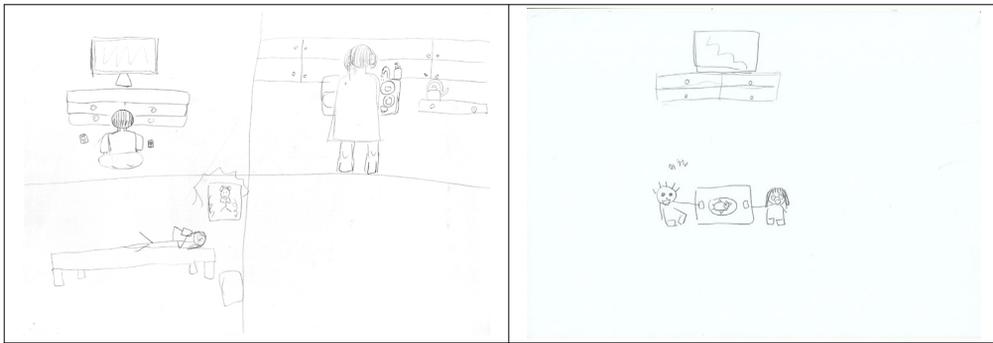
중반에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며 무기력하고 위축된 연구 참여자가 언어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으며 연구자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언어적인 소통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어 회기 초반에 음악을 들으며 자유화를 돌려 그려 반응하며 상호작용하자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자유롭게 표현했다. 연구자에 대한 방어가 감소하며,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자와 각자의 자유화에 대해 얘기할 때 연구자에게 먼저 하라고 하며 순서를 정하기도 하였다. 항상 연구자가 먼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는 수동적인 관계였는데 돌려 그리기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먼저 그리며 시작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며 언어적인 소통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연구자와 라포 형성이 되었다.

후반에는 연구자를 의식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언어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치료 종결을 아쉬워하고 종결 회기를 연장하길 원하여 초기보다 연구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연구자의 지지와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갖고 가족 관계와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의 맞벌이로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심리적 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모와의 상담에서 연구 참여자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오빠가 한국에 근무지를 옮겨 같이 살게 되며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조금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KF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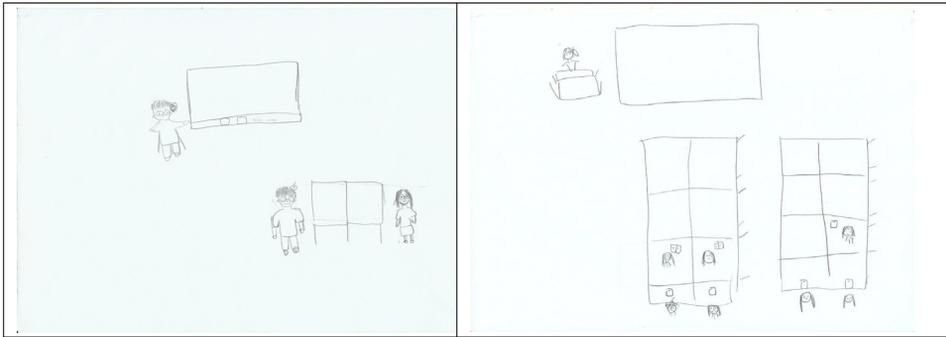
(동적 가족화) 사전검사에서 가족이 뒷모습을 보이며 각자의 공간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모습이었던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오빠의 입국으로 소통의 대상이 생긴 모습이었다. 부모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면담 전에 연구 참여자의 모가 교통사고로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엄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여 자신과 엄마와의 심리적 연결고리를 인식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엄마는 일찍 퇴근하고 아빠도 술 안 드시고 같이 밥 먹고 잔소리 안 하는 모습을 원한다고 가족이 함께 잘 지내길 기대했다.



〈그림 26〉 KFD 검사 변화 비교

한국 친구들과는 연구 참여자가 언어적 표현의 한계로 발음이 틀리면 친구들이 놀려서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에게 화가 나지만 참으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하여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모와 상담을 통해 연구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모는 초반에는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연구 참여자가 말할 때 친구들이 웃어도 ‘지들도 중국말하면 잘 할 것 같으냐’고 모에게 말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여 내면의 힘이 생겨 보였다. 학교에서 단짝 친구랑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관계가 좋아졌으며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KSD(동적 학교생활화) 사전 검사에서는 단짝 친구 한 명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사후검사에서 친구들과 여전히 소통이 어렵지만 전보다 좀 더 친밀해져 친구관계가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KSD 검사 변화 비교

3. 미술치료에 나타난 치료적 경험의 의미

가. 지금의 상태를 인식하다.

미술 작업은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매체가 되었는데 이 상징을 통한 감정 탐색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의 현재 상태에서 두드러진 감정은 혼란과 절망감으로 이는 ‘감정 파이’와 ‘다이빙대’로 표현되고 있다.

감정 파이(6회기)에서 크게 차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치료 후반 엄마에게 쓴 카드에 ‘막 한국에 왔을 때 세상이 회색으로 보였어요’라며 연구 참여자에게 회색은 혼란스러움으로 표현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학교와 집에서 뭐 할지 모를 때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한국에 입국한지 한 달 만에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며 학교에서는 수업을 알아듣기 힘들고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였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가기 전에는 더 말이 없어지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고 하며, 특히 한국 친구들이 공부 얘기할 때 자신은 공감하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함께 살게 되어 환경의 변화로 적응하기 힘들어 하였다. 부모님이 연구 참여자에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가족의 재결합을 힘들어하였다. 장명선, 송연숙(2011)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새로운 적응을 시작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정옥, 2015).

다이빙대(7회기)에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무기력한 자기상을 표현하여 연구 참여자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감당해 낼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측면들, 즉 감정적,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정인과, 2003; 성복순, 2006). 특히 청소년기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망감으로 부정적 인지를 갖게 된다고 나타났다(성복순, 2006; 최애숙, 2004).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탐색하려는 용기를 내었고 탐색하는 동안 힘들어했지만 혼란스러운 감정 기저에 있던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관계를 탐색하고 욕구를 만나다.

관계 탐색을 통해 집과 학교에서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 부모님과 또래집단 사이에서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심리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피상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모습이 KFD(동적 가족화) 사전 그림 검사와 Selfbox ‘나’에서 드러났으며,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감정의 표현 욕구와 소통의 필요성을 ‘NONO와 과녁’, ‘사과와 레몬’에서 드러냈다.

KFD 그림 검사(12회기)에서 연구 참여자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를 오히려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심리적 연결고리가 오랫동안 끊어져 대화가 단절되었고 부모님과 다시 같이 살게 되었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여전히 멀게 느끼고 있었다. 류방란 외(2011)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아동기,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부재로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해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기의 성장 특성과 맞물려져 반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도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아 보였다.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연구 참여자의 관계 패턴에도 영향을 주어 나(11회기)에서 Self Box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타인과의 거리를 두며 관계에 어려움과 대처 방식을 드러냈

다. 상자 밖의 자물쇠와 상자 안의 열쇠를 통해 자신만이 열 수 있는 상자를 통해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며, 상자 안에 “먹어”라는 스티커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자신의 방어기제를 표현하였다. 추후 면담에서 Self Box를 기억에 남는 작업이라고 하여 조용한 내면과 다르게 타인이 자신을 활발하게 볼 거라고 한 이유에 대해 “계속 웃어서”라고 하였다. 이유를 물으니 “어색해서”라고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치료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면담에서 무표정했지만 사전 면담에서 연구자와 다시 만나며 이전과 달리 굉장히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난감하고 어색할 때 연구 참여자가 웃으며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발음이 틀리면 학급 친구들이 놀릴까 봐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고 놀리는 친구들의 반응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였다. 그로 인해 발음을 놀리는 친구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해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운하고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핸드폰으로 “입 닥쳐”라고 적어 조심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김옥희(2003)는 자기 표현이 소극적인 아동은 용기가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혹시 잘못 말하여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이러한 경험은 또래에서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어 긴장, 좌절감, 우울, 불안 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였다(이보람 2014). 불쾌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자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등 회피와 주의 전환 방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는 불쾌감을 증가시키거나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이지영, 권석만, 2009; Fivush & Buckner, 2000; Marra, 2005; Rachman, 1980). 정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정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신체활동, 언어표현, 유머, 긍정적 사고와 행위가 건설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성복순, 2006).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분노를 상징하는 ‘NONO’ 습자지 공(9회기)을 통해 자신을 놀린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적힌 과녁에 던지며 언어적인 표현과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억압된 분노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었다. 주리에(2014)는 미술활동은 미술 치료 연구에서 카타르시스를 주거나 감각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 이외에 내적 갈등을 승화시킴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아의 힘이 강조된다고 하였다(왕금미, 2017).

연구 참여자는 단짝 친구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사과와 레몬(10회기)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서운한 감정과 갈등의 원인을 인

식하고 자기표현을 통한 소통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었다. 성복순(2006)은 감정 표현이 내적인 경험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감정 표현은 사람들이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전달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 자신의 자원을 찾다.

연구 참여자는 집에서 심리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핸드폰을 보거나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하였다. 감정 파이를 탐색할 때 핸드폰을 볼 때 평화를 느낀다고 하며,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하였다. 핸드폰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보며 자신의 꿈에 대한 대리만족과 활력을 얻고 있음을 ‘나야나’, 난화와 자유회에서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술재료로 만들며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급식’, ‘뿌듯한 밥상’에서 볼 수 있었다.

치료 초기 집과 학교생활에서 고립된 연구 참여자에게 핸드폰은 도피처이기도 하고 유일한 소통 창구였음을 연구 참여자의 KFD 사전검사와 얘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문리학(2008)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는 오랜 과정 동안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서 인터넷 이외의 자신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다른 활동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치료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표현한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해 연구자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과 직접 찍은 급식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며 연구자에게 소통의 매개로 사용하였다. 심언희(2013)는 미술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대신하는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어, 인터넷이 아닌 다른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그림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인 강다니엘을 상징하는 카카오 프렌즈 피치 캐릭터는 나아나<그림 3>, 난화<그림 11>와 자유화<그림 13-1>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피치 캐릭터<그림 19>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강다니엘에 대해 얘기할 때 또래 청소년들처럼 활기를 띠고 들뜨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후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는 강다니엘이 자신에게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하였다. 임양준(2016)의 연구에서 아이돌 스타에 대한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언급했다. Cheng(1997)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인지도가 높은 아이돌을 모방하고, 아이돌과 관련을 맺음으로써 일종의 긍지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한 나아나(3회기)에서 아이돌에 대해 얘기하며

자신도 춤을 좋아해서 중국에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 친구들과 앞에서 춤을 춘 적이 있다고 자신의 재능을 떠올렸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으로 우승하여 아이돌 멤버가 된 강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한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 곽금주, 장근영(1998)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스타는 단순한 동경 이상의 의미 있는 대상으로, 동일시 대상이자 정체감 형성의 의미 있는 준거 체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내면적 욕구와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현실 도피처로 작용하고 있어 청소년 발달에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임양준, 2016).

급식(13회기) 작업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그동안 찍어놓은 수많은 급식 사진을 보며 학습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무기력한 연구 참여자에게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주는 시간인 것으로 보였다.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도 혼자라고 느낄 때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고 하며 친구들과 관계에서 말이 안 통해서 짜증나거나 기분이 다운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였다. 이지영, 권석만(2009)은 음식을 먹는 행위는 포만감을 초래하여 긴장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늘 과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불안장애 환자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뿌듯한 밥상(14회기) 작업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었던 좋아하는 음식을 미니어처로 섬세하게 만들며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작품에 애착을 보였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미술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가지다.

치료 초기 연구 참여자의 작업에서 바다, 물의 이미지가 많이 표현되고 “행복, 편안한, 안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낯선 치료 환경에서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며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에 안정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하며 ‘아기와 바다’, ‘별이 빛나는 밤에’, ‘벚꽃나무’로 표현하였다. 또 새해 소망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엄마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기대를 표현하며 현실적인 소망을 ‘꽃’과 ‘힐링’으로 표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기와 바다(2회기), 별이 빛나는 밤에(4회기) 작업을 통해 바다 이미지에서 편안한 느낌과 안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감정을 탐색할 때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욕조의 물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며, 다이빙대를 표현하며 바다에 빠져 죽고 싶다고 할 때도 물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물은 동양과 서양에서 창조의 원천이며, 풍요

와 생명력의 상징이며, 서양에서 물의 상징에는 인간이 처음 만나는 양수인 물을 통해 태아는 그 물의 성질에 의해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보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 (임명선, 2012).

박진주(2012)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기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데,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정서적 안전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James(1994)에 의하면, 애착인물의 상실에 의해 안정 애착에 실패한 개인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애착형성 혹은 중간시기 보완적 애착형성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5살 이후 부모와 떨어져 살다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 사이에 애착 대상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치료사와 중간 시기 보완적 애착형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점차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벚꽃나무(5회기)에서는 관계에 대한 욕구는 없지만 30세에 결혼하여 안정되고 행복하고 예뻐 보이고 싶다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표현하였다. 그밖에 연구 참여자의 자유화 중에 무지개, 구름, 해, 하트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보이며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지개는 갈등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 그려진 문제가 해결을 기대하거나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촛대 잔(17회기)에서 자신의 새해 소망을 표현하고, 아로마 초(18회기)는 연구 참여자가 향이 좋아서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촛불은 재생의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바슐라르는 불이 지닌 재생의 의미로 삶의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이에서의 파멸이란 하나의 변화 이상의 것 즉, 재생, 환생을 말한다고 하였다(곽현영, 1994). 연구 참여자의 촛불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소원했던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로도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과정에서 드러난 변화는 상징을 통한 자기표현이 다양한 감정 표현의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인 자기상과 관계향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과정에서 미술작품이 상징적인 표현의 하나로써

욕구와 생각, 느낌을 안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해가면서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도 확장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미술 매체를 이용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심리적으로 이완되고 연구자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며, 점차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고 표현의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술치료 과정에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상징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치료 초기 불안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안정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였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표출하며 점차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인간에게는 상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물건이나 형태를 상징으로 변용시키고 이를 종교나 미술로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 (Jung, Franz, Henderson, Jacobi, Jaffe, 1964; 황선영, 2010).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과정에서 언어적으로도 자신의 욕구와 생각, 느낌을 탐색하고 표현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의식화의 과정으로 연결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만든 미술작품의 상징은 언어적인 표현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언어적인 표현의 증진은 자신의 상징에 대한 의식화 작업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을 통찰할 수 있었다. 치료 초기 연구 참여자는 발음이 틀릴까 봐 침묵하거나 고개를 흔들며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였으나 연구자와의 지지와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긴장이 완화되어 점차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치료 과정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드러내며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출하고 난 뒤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자기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다. 정여주(2004)는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림의 상징은 치유적 힘을 활성화시키고, 예언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 의미를 도출한다고 하였다.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은 미술치료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입국 초기 학업의 어려움과 또래관계의 갈등, 부모와의 심리적 단절로 고립되며 핸드폰에 몰입하였다. 미술치료를 통한 연구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치료환경 밖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소통을 시도하며 심리적 연결고리를 찾고, 오빠의 입국으로 단절되었던 가족의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단짝 친구와의 또래관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치료 초기 연구 참여자가 다이빙대에서 내려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찾지 못했지만 치료 후반 자신의 적응 과정을 돌아보며 “상담과 친구”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여 다이빙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입국초기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불안 속에서 부모의 지지를 얻기 힘든 연구 참여자가 미술치료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얻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가족의 재결합으로 인한 부모와의 심리적 연결고리가 약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미술치료가 사회적 지지로서 중요한 심리적 지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표현에 중점을 둔 미술치료를 통해 부적응 청소년이 연구자와의 관계 형성 및 신뢰감을 바탕으로 초기의 피상적인 자기표현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기표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술치료 과정에서 경험과 감정, 정서표현이 증진되었다(임혜순, 2016)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미술 표현의 형식적 측면에서 추상적 표현, 은유를 사용하여 대화의 단초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언어적으로 자기표현을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미술을 통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증진에 의미가 있으며 연구자와 안정적인 관계 안에서 성취감과 주도성을 경험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선택적 함묵증 아동에게 적용한 미술치료가 우울과 불안 증상 및 위축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자기표현력 향상에 효과를 주었다(장은선, 2012)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미술치료 과정에서 비언어적인 상징을 통해 언어적 자기표현이 증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고 연구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나영, 이현주, 조성남, 주영주(201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파주: 도서출판 그린.
- 김옥희(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광금주, 장근영(1998). 록큰롤 음악의 심취정도와 자극추구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 성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1(1), 27-38
- 고영화(2017).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미술치료 사례연구. 교육혁신연구, 27(3), 213-239.
- 광승주(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야기 구성 및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현영(1994). 김정환의 상징 유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기덕, 김동연, 최외선(1993).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가족스트레스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4(1), 63-81
- 권희정(2017). 40대 기혼여성의 자기이해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질적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권(2015). 한국 노동이주정책의 개방성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권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2015).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흥기(2015).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 서울경기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27-159.
- 류방관, 오성배, 박균열, 송인영, 박지은(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방관 외(2012). 한국 가족변화의 특징과 전망 협동연구 : 가족변화 관련 교육정책의 향후과제.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문리학(2008). 집단미술치료가 인터넷 중독 초등학생의 자기통제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계영(2017). 미술치료가 쉼터거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봉수, 김영순, 최승은(2013).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1-355.
- 박혜준(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 20(1), 99-129.
- 박진주(2012).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방임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복순(2006).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언희(2013).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서울: 동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왕금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편)(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근매, 김정순(2006).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감소 및 또래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3(5-1), 49-79.
- 이보람(2014). 불안감을 가진 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기효능감 변화과정에 관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이근매(2014).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21(3), 499-517.
- 이선숙(2016).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 뭉크 작품을 대상으로 한 KHTP분석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6(1), 17-40.
- 이우경, 이원혜(2012). 심리 평가의 최신 흐름. 서울: 학지사.
- 이지영, 권석만(2009). 정서장애와 정서조절방략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 28(1), 245-261.
- 이해리, 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 청소년연구*, 16(2), 161-206.
- 임명선(2012). 회화작품에서 물의 상징적 의미와 치유적 성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숙(2014).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이중문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준(2016). 연예인 아이돌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미디어 관여 연구 : 국내 중,고등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아이돌 스타의 이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2), 153-180.
- 임우영(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학교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순(2016).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자아정체감을 위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선, 송연숙(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은선(2012). 자기표현력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가 선택적 함묵증 아동의 우울·불안 및 위축행동 개선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민경(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사업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영(2016). 공예활동 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과(2003). Lethargic Depression(무기력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 DiaTreat: Diagnosis & Treatment, 3(2), 588-590.
- 정여주(2004). 미술치료에서 상징의 심층심리학적 고찰. 심리치료, 4(1), 97-112.
- 주리에(2014). 미술치료 요리책 : 요리처럼 배우는 미술치료 레시피 130. 파주: 아트박스.
- 최연(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디어중독 현상과 미디어교육 방안 연구 : 다문화가정 부모와 다문화교육 전문가와의 FGI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애숙(2004). 고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경험이 우울, 무망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황선영(2010).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 근거한 미술 작품에 나타난 개성화 연구. 미술치료 연구, 17(3), 733-757.
- 홍승희(2005). 초등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홍익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ck, J. N.(1948). The H-T-P technique,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coring manua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 4, 1-120.
- Cheng. S. (1997).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idolatry in adolescents. *Adolescence*. 32. 687-692.
- Burns, R. C(1987).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 New York: Brunner-Routledge.
- Burns, R. C(1987).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 New York: Brunner-Routledge. 김상식 역(1998).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p. 1-102). 서울: 하나의 학사.
- Burns, R. C., & Kaufman, S. N. (1970). *Kinetic Family Drawing (K-F-D)*. New York: Brunner/Mazel.
- C. G. Jung, Von Franz, M. L., Henderson, J. L., Jacobi, J. & Jaffe, A. (1964).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서울: 열린책들.
- Fivush, R., & Buckner, J. P. (2000). Gender, sadness, and depression: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focus through gendered discourse. In A. Fischer (Ed.), *Gender and emotion: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232-25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mer, E. F. (1969).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personality and the H-T-P, achromatic and chromatic. In Buck J. N., & Hammer. E. F. (Eds.) *Advances in House-Tree-Person Techniques: Variation and Applications*.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35.
- Hulse, W. C. (1951). The emotionality disturbed child draws his family. *Quarterly Journal of Child Behavior*, 3, 152-174.
- James, B. (1994). *Handbook for treatment of attachment-trauma problems in children*. Toronto: The Free Press.
- Knoff, H., & Prout, H. T. (1988). *Kinet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A Handbook*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 Marra, T. (2005).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in Private Practice*. New Harbinger Publications.
- Merriam, S, B. (1994). 질적사례연구법-교육학에서의-. (허미화 역). 파주: 양서원.
- Miles, M. B., & Huberman, A. M. (2012). 질적자료분석론. (박태영, 박소영, 반정호, 성준모, 은선경, 이재령, 이화영, 조성희 역). 서울: 학지사.
- Rachman, S. (1980). Emotional processing. *Behavior Research anf Theraphy*, 18, 51-60
- Vance, R .& Wabin, K. (2008). 미술치료와 임상뇌과학. (김영숙, 원희량, 박윤희, 안성식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Abstract〉

**A Case Study of Art Therapy about Self-Expression
of immigrant adolescent**

Im, Young-Hwa · Park, Eun-Sun

Bucheon Art Psychology Development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rapeutic experiences and change processes which were revealed during art therapy in immigrant adolescent. The participant was a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 aged 17, who is a child of immigrant worker, and she was referred due to difficulties in the early adjustment after entered Korea. Given the participant's limitations in verbal expression, ego-resilience scale,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s (KHTP), Kinetic School Drawing (KSD), and Kinetic Family Drawing (KFD) were conducted to identify her intra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Data collecting was performed with reference to statements, work pictures, therapeutic journals, and this researcher's journals. Also, The data analysis showed the process of change experiences and the meaning of the art therapeutic experiences by reference to statements, supervision materials, therapeutic journals etc. applying method of qualitative case study. The meaning of the art therapeutic experiences were summarized into four themes ('recognizing present state of oneself', 'exploring relationships and meeting desires', 'searching for resources' and 'having hopes and plans for the future') The change in the art therapy process of immigrant adolescent showed that the self-expression through the symbol enables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various expressions of emotions, thus show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lf-imag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howed that the art therapy helped the immigrant adolescent to symbolically · verbally express herself through nonverbal interactions during the program and to adjust to korea with positive self-image and future vision.

Key Words : Art Therapy, Self-Expression, immigrant adolescent, Case Study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증례보고 -

양수아* · 문소영**
풍납종합사회복지관 ·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산업재해로 좌측 4수지절단 진단을 받은 65세 남성 환자를 선정하여 증례보고로 시행하였고, 6주 간 주 2회, 50분씩 총 12회기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PSE', '흑 건반 즉흥연주', 'TIMP' 활동으로 설계되었다. 손 협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ox & Block Test, MIDI Program이 사용되었으며, 우울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가 사용되었다. 또한 두 변인의 단계별 내용분석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대상자는 사전-사후의 'Box & Block Test'에서 환측 손의 협응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MIDI 프로그램을 통한 타력 값' 측정에서도 환측 손의 타력 값이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CES-D'는 사전-사후 간 우울감이 감소된 결과를 도출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두 변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추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재활 치료적 증재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갖는다.

핵심어: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수지 접합, 손 협응력, 우울감

* 본 연구는 양수아(2018)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절단 재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연구”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문소영(soyoung74@gmail.com)

■ 게재 신청일 : 2018년 7월 14일 ■ 최종 수정일 : 2018년 8월 8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지난 반 세기동안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산업재해 환자들이 급증하였고(고용노동부, 2016), 이와 같은 기계화된 설비 등에 의한 수지 손상 및 절단사고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이다(박광철, 2002; 송경향, 2003; 윤순영, 2009; 이산휘, 2015; 최영실, 2000).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10개의 수지접합전문병원을 지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 4개의 전문병원이 추가로 개설되면서(보건복지부, 2017) 수지 절단 사고가 결코 낮은 빈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90,909명 중 절단·베임·찢림 재해자는 7,802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인간의 신체부위 중 상지 및 손의 부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부분의 동작 및 수행을 담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정재권, 오명화, 1999; 장철, 박성호, 김경희, 김민제, 이제영, 2016). 이렇듯 인간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손에 급작스러운 절단상을 당할 경우 수지 절단 환자는 수술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 마취,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우울, 수술 후 재활의 어려움, 작업능력의 상실, 재정적 문제 등으로 심한 정서적 압박감을 받게 된다. 또한 수지의 절단이라는 신체상의 변화로 절망감을 경험하며, 심한 경우 작업능력의 상실이나 일생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서문자, 2004; 양기우, 1995; Caldwell & Elair, 1978; Samarel & Fawcett, 1992).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수지 절단 환자는 수술을 감행하여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수술 이후 재활을 통해 손 기능을 복원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즉, 수부재활은 수부 및 상지의 골절, 인대 손상, 힘줄 손상, 압궐 손상 및 절단 등의 외상이 발생하여 수술을 시행한 이후 가장 필수적으로 접근하는 치료과정이다(대한수부외과학회, 2014). 현재 수부재활치료를 위한 치료 요법으로는 온열 치료와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 등이 선행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수지 접합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지시하는 치료 처방은 온열치료와 자가-재활치료이다(대한수부

외과학회, 2014). 이는 혈전 및 부종을 예방하여 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으로 사용되지만, 환자의 심리적인 우울감과 더불어 정서적인 영역을 회복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가-재활치료는 개인의 안녕이 위협되었던 절단 사고 이후 자가-관리 역량에 결핍상태를 보이게 되어 자발적인 재활을 지속하기 어렵다(Orr, Reznikoff & Smith, 1989).

이렇듯 현재 손상된 손 기능을 가진 환자에게는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를 통한 재활을 시행하고 있지만(장철 외, 2016), 음악치료 분야에서도 신경학적 음악치료기법을 통해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문소영, 2006; Thaut, 2009). 신경학적 음악치료는 과학적, 임상적 증거를 기반으로 비음악적인 치료목표에 접목이 가능하며, 치료적 음악 개입으로 각 영역에서 환자의 기능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Thaut, 2009; Unkefer & Thaut, 2002). 특히 신체 재활을 위한 악기연주는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상기제로 적절한 신체 움직임을 유도하는 치료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문소영, 2006; Thaut, 1999). 선행연구에서 뇌손상환자에게 건반악기연주 기법을 적용하여 손가락 협응력과 기민성 재활에 도움을 준 연구(문소영, 2006)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에게 MIDI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세 손 기능에 효과를 준 연구(한송이, 2011), 그리고 뇌졸중 편마비 노인환자에게 MIDI 건반연주 기법을 활용하여 손 기능 향상에 기여한 연구(신미희, 2015)를 통해 치료적 건반연주 프로그램이 환자의 손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지 접합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음악치료기법으로 접근하여 재활치료를 시도한 것에 관한 임상 사례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수지 접합 환자는 손 기능의 재활뿐만이 아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감 및 저하된 자아 존중감에서 오는 정서적 불완전함이 재활치료를 받고자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바(최은정, 2002; 한태륜, 김연희, 백남중, 2008),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대상 영역이 된다. 음악치료는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음악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하는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을 해소시키고, 결여된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적 역할을 감당한다(김경훈, 최보람, 박춘선, 2012; 이미옥, 2009; 정육희, 2002; 최은정, 2002; 최병철, 2010). 이와 같이 음악치료 연구는 불안과 우울을 가진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수지 접합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전-사후 간 환자의 좌측 접합부위 손 협응력에 기능적인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환자의 우울감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알아봄에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은 수지 접합 수술 환자의 손 협응력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은 수지 접합 수술 환자의 우울감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B시의 S수지접합 전문병원의 대상자 1명이 참여하였다.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본 연구의 참여에 대한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자, 수지 접합 수술 이후 전문의에게 재활 지시를 받은 자, 한국판 우울 검사 결과가 16점 이상인 자, 음악치료 및 피아노의 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구 결과에 미칠 변수를 고려하여 이전에 음악치료 및 피아노 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로 선정하였다. 한국판 우울 검사 결과 점수의 커트라인 선정은 산업재해 환자군 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울증상 검사에서 경·중증도의 우울을 보인 36.7%의 양성율(김수인, 2000)과 한국판 우울검사의 우울감 정도를 대조하였을 때 최대 절단점이 '16점'이라는 연구결과(조맹제, 김계희, 1993)를 발취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1〉 대상자 정보

나이	성별	발병원인	발병일자	진단명	우세손
65	남	산업재해	2017. 02. 27	좌측 4수지절단	오른손

대상자는 운수업 종사자로 만 65세 남성이다. 평생을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자부심을 느꼈고,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면모와 강한 책임감을 보였다. 그러던 2017년 2월 27일 13시 경, 대상자의 실수로 철제에 손을 빠지 못하여 좌측 4수지 ZONEⅡ의 100%

절단 상을 당하였고, 수지접합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지 접합 수술을 받은 후 보호병동으로 입실하였다. 평소 내향적인 성격으로 타인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담당 간호사는 대상자가 의료진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표출하거나, 물리치료 시간을 결석하며 치료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등 환부로 인한 수치심과 불안감, 저하된 자존감을 보인다고 전달하였다.

2. 연구 절차

2017년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6주간 주 2회 50분,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 준비과정에서 연구자는 S수지접합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권고아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4개월 간 총 16회기 임상 수련을 수료하였으며, A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의 사사로 측정 영역에서의 훈련을 받았다. 연구절차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절차

연구 절차	
연구준비과정	내용 타당도 검정, 전문의와의 협의 후 대상자 1명 선정 음악치료 기대 효과 설명 및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사전 검사	Box & Block Test, CES-D(한국판 우울 측정 검사)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Orientation
프로그램 중재	Hello song, PSE, 건반 즉흥연주, TIMP(아리랑 연주), MIDI 프로그램 타력 값 측정 및 회기별 인터뷰
사후 검사	Box & Block Test, CES-D(한국판 우울 측정 검사)

Box & Block Test와 CES-D 검사는 프로그램 시행 전과 종결 이후의 변화를 단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간 실시되었다. 반면, MIDI 측정은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점인 1회기부터 12회기 사이의 변화를 단계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중재 중 시행되었음을 밝힌다.

3. 연구 도구

가. Box & Block Test

Box & Block Test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손의 조작능력 및 기민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다(김진현, 정원미, 2004). 검사 방법은 1분 동안 피험자의 우세 손으로 나무토막을 반대편 상자로 옮기고, 다음으로 비우세 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무토막을 옮기도록 하여 1분 동안 칸막이에 넣은 나무토막의 개수를 세어 측정한다(대한수부외과학회, 2014). Box & Block Test의 신뢰도는 .09이다(박지은, 2011).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전문가에 의하여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Box & Block Test를 시행하였다. 1분 동안 수행한 나무토막의 개수는 연구 결과의 최종 자료로 사용되었고, 사전-사후 간 양 손의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나. MIDI 분석을 통한 수지 타력 값 측정

본 연구에서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 MIDI 프로그램이 접목되어 평가되었다. 이는 건반을 타건하였을 때,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양적인 데이터를 수치화할 수 있어 손 기능 평가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문소영, 2006; 신미희, 2015; 조은정, 2016; 한인희, 2013).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제시 과제로 손 협응력 향상을 위한 MIDI 평가가 실시되었다. 연타를 요하는 첫 번째 측정 과제는 수부외과 전문의의 진단에 입각하여 주 1회씩 측정하길 권고하였다. 따라서 주 2회의 연구 Setting 중 1, 3, 6, 9, 12회기 별 프로그램 종결 이후 1회씩 측정되었다. 측정 방법은 좌측 집합 4수지를 20초간 일정하게 연타(連打)하도록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회기별 연타 횟수 및 횟수 간 타력 값의 평균, 연타의 일정함을 파악하기 위한 타력 값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사전-사후 간 변화율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측정 과제는 매회기 프로그램 종결 이후 시행되었다. 측정 방법은 흑 건반을 활용하여 M.M.₁=80에 맞춰 좌측 소지부터 엄지까지 순차적으로 5음계를 타건하도록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좌측 손의 협응력을 파악하기 위한 타력 값 평균 및 타력의 일정함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사전-사후 간 변화율을 파악하였다.

다. 한국판 우울 측정 검사(CES-D)

CES-D는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에 의해 개발되어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형 우울 척도이다. 이를 안귀여루(1988)가 총 20문항의 한국판 우울 측정 검사로 번안하였고, 긍정적인 문항 3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17문항으로 되어 있는 4점 우울 척도이며 총점은 60점이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계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89이다.

4.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은 회기마다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제공되었다. 1단계는 악기연주 기술을 적용하고 인지하기 위한 ‘인지적 단계(1-4회기)’, 2단계는 프로그램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패요소는 제거되고 성공적인 요소를 습득하는 ‘조합 단계(5-10회기)’, 3단계는 과제 능률이 정확해지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율단계(11-12회기)’로 구성되었다(Fitts, 1964). 본 프로그램은 타당성을 위해 음악치료 대학원 교수 1인, 의학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구성의 타당성을 검정 받았다. 프로그램은 회기 별 50분이며 전체 구성 및 치료적 논거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단 계	회 기	목표	활동	치료적 논거
초 기 인 지 단 계	1 4	라포형성	<Hello Song> <PSE 훈련> - 관절 자극 중심	<활동 1. Hello Song> Hello song은 치료의 시작을 알려주는 곡으로 치료의 도입에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며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흥미를 이끌 수 있다(이석원, 2002).
		신전골곡	<혹 건반 즉흥연주> -자유즉흥연주	
		관절 자극	<TIMP 아리랑> - 8마디 연습 중심	

단 계	회 기	목표	활동	치료적 논거
중 기 조 합 단 계	5 10	우울감소	<Hello Song>	<활동 2. PSE 훈련> PSE 기법 내에서의 음악은 신체 운동 패턴에 시간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동작 수행의 조절을 돕는 감각적 신호를 제시하며 효율적인 운동의 연습과 재학습을 돕는다(Thaut, 2005; Waller & Whittall, 2008).
		성취경험	<PSE 훈련> 손 움직임 증진 접촉 감각 증진	
		실패요소 감소	<혹 건반 즉흥연주> - 자유즉흥연주	
		손 협응력 향상	<TIMP 아리랑> - 16마디 연습 중심	<활동 3. 혹 건반 즉흥연주> 연구자의 지지적인 반주 제공은 대상자의 정서를 위로하고, 긍정적 정서와 건강한 사고를 회복하게 하며, 내적 힘을 강화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다(Unkefer & Thaut, 2002).
후 기 자 율 단 계	11 12	손 협응력 향상	<Hello Song>	<활동 4. TIMP 아리랑 연주> 건반을 연주하는 것은 장력을 이용하여 근육을 자극시키는 등척성 운동으로 굴곡근을 회복시키고 기민성을 향상시킨다(문소영, 2006). 또한 손목의 회전력이 향상될수록 장악력이 강화된다. 또한 대상자가 선호하는 음악이나 친숙하게 생각하는 음악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기능을 불러온다(Baker, 2000).
		우울감 감소	<PSE 훈련> 근력강화 훈련	
		성공경험 획득	<혹 건반 즉흥연주> 자유즉흥연주	
			<TIMP 아리랑> 아리랑 완곡 독립적 연주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중재하였다.

첫째, ‘Hello Song’ 활동에서는 연구자와 대상자의 라포형성에 집중하였으며, 대상자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상자에게서 표출되는 분위기를 해석하였다. 둘째, ‘PSE’ 활동에서 연구자는 대상자의 부종 예방, 혈액 순환, 대립 자극, 근육 사용 촉진에 초점을 두어 신체적인 회복과 손 협응력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하여 음악적 요소인 리듬, 멜로디, 하모니, 다이내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호를 제공하였고(Thaut, 1999), 대상자가 들려오는 음악을 청취하여 신체를 가동할 때 물려오는 지루함 및 피로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다. 셋째, ‘혹 건반 즉흥연주’ 활동에서는 우울감 감소를 위해 즉흥연주 기법 중 ‘안아주기’, ‘반영’ 기법을 활용하였다(Wigram, 2004). 세부적으로는 혹 건반 5음계를 사용하는 것에만 구조화를 이루었으며

그 이외의 연주 시간, 연주 방법 등 수행에 있어서는 온전히 내담자 중심으로 중재되었다. 넷째, 아리랑을 연주하는 ‘TIMP’ 활동에서는 회기마다 실패 요소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고(조합단계), 대상자가 직접 선정한 선호곡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여(자율단계) 성취경험을 도모하였다(문소영, 2006; Fitts, 1964).

III. 결과

1. 손 협응력에 관한 Box & Block Test

대상자 1명의 손 협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Box & Block Test를 사전과 사후에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 변화를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작업치료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검사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손 협응력에 관한 Box & Block Test 사전-사후 결과 비교

분류	사전측정	사후측정	사전-사후 변화율(%)
우측 손 횡수	54	68	25.9%
좌측 손(환측) 횡수	45	67	48.8%

2. 손 협응력에 관한 MIDI 타력 값 및 내용분석

가. 과제 1: 20초간 접합 4수지 단음(D#) 연타 측정 결과

<표 5> 접합 4수지 단음(D#) 연타 회기별 비교

분류	1회기	3회기	6회기	9회기	12회기	사전-사후 변화율(%)
타건 횡수	16	23	28	33	43	168.7%
타력 값 M	32.8	36.9	48.6	69	83.7	154.9%
타력 값 SD	7.9	6.3	6.5	4.5	3.9	50.6%

나. 과제 2: 좌측 접합 부위 손 협응력을 위한 5음계(C#, D#, F#, G#, A#)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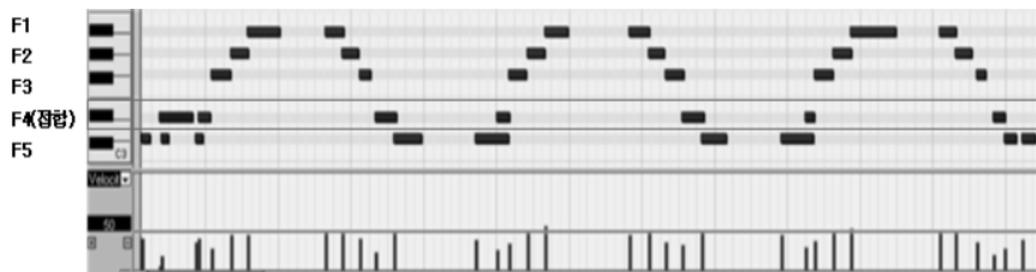
연구자는 대상자의 손 협응력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회기별 측정검사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타력 값을 단계별(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여 다음 <표 6>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6> 좌측 접합 부위 손 5음계 타력 값 평균(M), 표준편차(SD), 변화율(%) 단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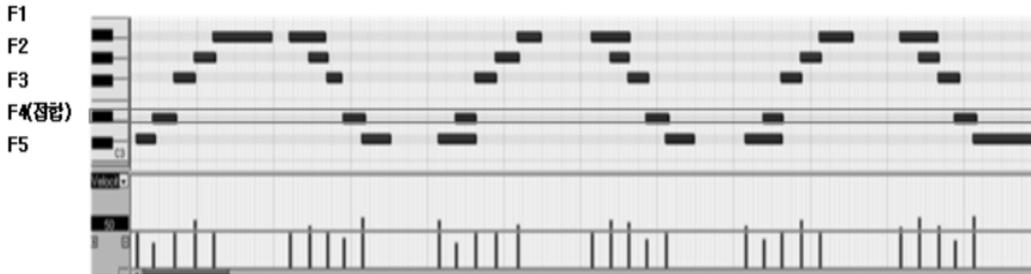
분류	초기(1-4)	중기(5-10)	후기(11-12)	사전-사후 변화율(%)
타력 값 M	42.5	55.9	67.38	58.4%
타력 값 SD	11.35	6.79	3.24	71.4%

다. 손 협응력 측정(과제2)에 대한 단계별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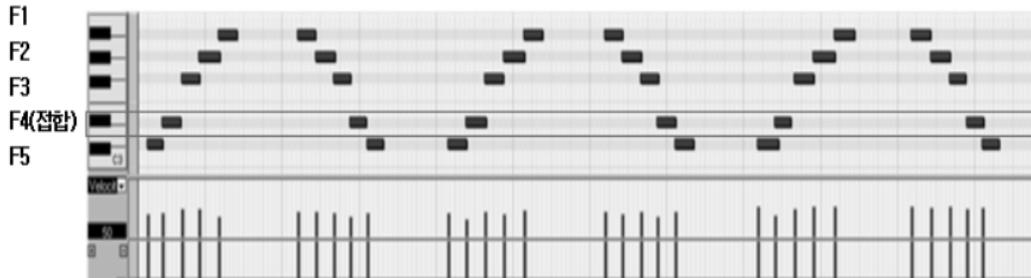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손 협응력 향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과제 2’의 수행과정 및 대상자의 참여내용을 분석한 후 질적으로 접근하였다. 과제2 측정 결과에 따른 단계별 내용분석은 대상자가 과제2에 참여하면서 수치화된 MIDI Note를 열거하여 시지각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고, 좌측 접합부위 손의 독립적인 수행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상되어 손 협응력에 도움을 이루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서 분리했던 단계별 목표(인지적 단계, 조합 단계, 자율 단계)가 대상자가 수행한 과제 측정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는지를 질적으로 파악하였고,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은 결과가 요약되었다.



<그림 1> 초기 측정(과제 2) 중 2회기 수행 MIDI Note



〈그림 2〉 중기 측정(과제 2) 중 6회기 수행 MIDI Note



〈그림 3〉 후기 측정(과제 2) 중 12회기 수행 MIDI Note

〈표 7〉 단계별 변화에 대한 내용분석 요약

단계	단계별 분석
초기 (1-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거부에서부터 측정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거침 - 접합 F4의 타건을 위해서 양 옆의 F5, F3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임 - 타건의 두려움으로 건반을 실수하여 접촉하는 모습이 잦음 - 건반을 타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측정을 거절하던 모습부터 각 수지를 가동하여 5음계를 명확하게 연주하고 싶어 하는 모습까지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
중기 (5-10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_r=80 신호를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연주하려는 모습이 발견되었음 - 타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복되는 타건 없이 연주하였음 - 측정 이후 자발적인 연습 의지를 보이며 실패요소 제거 모습 관찰됨 - 점차적으로 각 수지를 독립적으로 가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음 - 9회기에 접어들면서 이전 측정 회기들보다 일정한 길이(Length)로 타건하는 연주를 선보임
후기 (11-1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타력 값이 50을 넘으며 타건 시 접합 F4의 힘 있는 소리를 산출함 - 박자마다 F를 변환하는 순차적 교차 연주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음 - 박자마다 일정한 길이로 타건을 수행함

3. 우울감에 관한 CES-D 검사 및 내용분석

가. 한국판 우울 측정 검사(CES-D) 결과

〈표 8〉 한국판 우울 측정(CES-D) 검사 결과 비교

분류	사전	사후	사전-사후 변화율(%)
CES-D	17	5	70.58%

나. 우울감에 관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단계별 내용 분석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지 접합 대상자의 우울감 감소에 따른 의미 있는 단계적 변화를 도출하고, 보다 질적으로 대상자의 정서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회기별로 대상자의 행동, 표정, 악기표현,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우울감의 범주는 대상자가 회기별로 나타낸 우울감 증세를 ‘DSM-5 진단기준’ 및 ‘CES-D 검사 항목’과 대조하여 추출하였고, 연구자와 심리상담 전문가 1명에 의해 범주가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초기, 중기, 후기로 분할하여 우울감의 변화를 추이하였으며, 회기별로 대상자가 보인 우울감을 분석한 결과 다음 <표 9>와 같은 범주가 구성되었다.

〈표 9〉 내용 분석을 위한 범주 분류

범주	하위범주	내용
흥미 즐거움 및 피로	제한적 참여	DSM-5에 의하면(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 증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피로’의 증가임을 명명하였으며,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안에서 대상자의 참여도를 통해 ‘흥미와 즐거움’, ‘피로’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이 범주는 대상자의 참여 수준을 통해 ‘흥미와 즐거움’, ‘피로’의 범주 분석을 이해할 수 있고,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음
	수동적 참여	
	적극적 참여	
무가치함 및 집중력	눈맞춤의 부재	DSM-5에 의하면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집중력’의 감소가 우울감을 진단하는 증상임을 명명하였으며,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 연구자-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가치함과 집중력’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 따라서 본 범주는 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적 상호작용	

범주	하위범주	내용
	적극적 상호작용	‘무가치함과 집중력’의 범주 분석을 이해할 수 있고,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음
음악적 변화	회피적 수용적 자율적	범주는 대상자가 활동 3의 즉흥연주에 참여하면서 발전되는 음악적 스킬과 우울감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

(1) ‘흥미 및 즐거움’과 ‘피로’의 변화: 제한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

대상자는 최초 만남에서 활동에 대한 거부적 성향과 급격한 피로감을 드러내었다. “이렇게 추운 날, 내가 치료실까지 움직여야 하나요?”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거부적 경향을 보였으며, 1분 거리인 이동 시간이 5분 소요되었다. 이후 활동 과정에서도 “나는 손가락이 잘렸으니까...”, “내 손가락을 봤는데 썩어가는 것 같아” 등의 자기 비난적 표현들을 표출하며 프로그램 활동 안에서 제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1회기에는 대상자가 연구자에게 치료를 빨리 끝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땅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거나 꾸준하게 무기력함 및 저하된 기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구자는 1회기의 MIDI 검사를 위해 대상자에게 “이 건반이 적은 힘의 타건에도 큰 소리를 산출한다.”는 소개를 하면서 건반을 연주해볼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상자는 “아직 다친 손가락을 눌러보는 것은 무서워.”라며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연구자의 모델링을 통해 건반을 접촉하는 첫 참여가 이뤄졌다. 이후 2회기부터 건반을 연주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지 않다는 듯 “다친 손을 살살 눌러보니 피가 확 도는 느낌이네.”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하였으나, “이거 피아노를 치면 손가락이 괜찮아지는 게 맞나요?”라고 말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경계와 양가감정을 가졌다.

대상자는 중기(5-10회기)에 건반연주에 대한 경계적인 모습과 제한적인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즉흥연주 과정에서 “처음에는 건반을 누르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이게 운동이 되는 구나... 괜찮은데?”라는 표현을 하며 거부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다. 때로는 부분적으로 한 활동만 길게 참여하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 저하된 참여도를 보였으나, 참여를 통해 혈액순환을 느끼고 감각이 증진되는 점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기분을 파악하여 Holding 기법으로 반주(스타카토 주법)를 제공하자 “재밌네.”라고 언급하며 웃는 표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꾸

준한 운동으로 인한 통증이 생기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려는 생리적 기전이 발생되어 활동에 참여하면서 급격한 피로감과 불안감은 중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초기에 보였던 무기력함과 저하된 기분상태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아리랑’ 연주를 통해 회복되었다. 연주 기술을 습득하며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참여 자세도 향상되었다. 또한 건반을 타건하는 빈도수가 증가되면서 “손가락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통해 접합 4수지를 건반에 접촉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대상자는 자발적인 참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면서 “이제 다친 손을 힘 있게 눌러도 상관없다.” 등의 표현을 연구자에게 전달하였고, 건반 연주에 힘을 싣는 등 적극적 참여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대상자는 후기(11-12회기)에서 중기 단계에 분석되었던 부분적인 참여와 잔여의 피로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연구자가 예상했던 참여 이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적극적인 참여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연주 기술의 발전으로 “오늘은 조금 빨리 연주하고 싶네.” 등의 표현을 드러내며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착석했을 때의 상지 자세가 올곧거나 앞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구자의 반주에 적극적으로 소리를 더하였다. 대상자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초중기 단계에는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참여가 이뤄졌지만, 후기(11회기)에 들어서면서 “지금부터는 2번(접합부위 약지)과 3번(중지) 숫자 건반을 번갈아가면서 연주해볼 테니 선생님께서 반주를 해주세요.”라는 표현을 하며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즉흥연주를 시작할 때에도 “시작”이라는 발언과 함께 당당하게 시작하였고, 도리어 즉흥연주를 언제 끝낼지 연구자가 파악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2) ‘무가치함’ 및 ‘집중력’의 변화: 눈맞춤의 부재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까지

대상자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기 과정(1-4회기)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여 부정적으로 “나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건반 두 대를 의미)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이게 뭐가 되겠나?”의 언급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활동을 진행하면서 무기력한 모습과 눈맞춤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라포형성에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음악치료와 물리치료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온열기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구자에 대한 단혀있는 마음이 표정에서 자주 드러났고, 총 50분의 회기에서 35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전

반적으로 “내가 원래 지금 여기 없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그냥 병실에서 누워 있는게 낫지” 등의 표현을 통해 대상자가 경험한 신체상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연계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중기(5-10회기)에 돌입하면서 연구자가 바라본 대상자의 무가치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대상자는 사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 자녀 소개, 퇴원을 바라는 마음 등 연구자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상자가 특정하게 집중력이 강화되는 활동이 확인 되었는데, 즉흥연주와 더불어 아리랑을 연주하는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비디오 분석 결과, 대상자는 즉흥연주 과정에서 들려오는 연구자의 화성 반주가 대상자가 추출하는 소리와 어우러지는 과정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음악적인 상호작용이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내담자가 건반을 힘 있게 눌러보기도 하고, 여러개 연주하는 등 즉흥연주 안에서 연구자와 줄다리기 하는 모습 및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기 후반까지는 즉흥연주 과정에서 연구자가 소리를 줄여 탐색할 때 바로 연주를 중단하는 모습도 간혹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음악 안에서의 상호작용 또한 증가되면서 주의력 및 집중력도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중기에서의 ‘무가치함’ 및 ‘집중력’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후기가 되기 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대상자는 후기에서 즉흥연주의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59분으로 증가하고, 음악적 상호작용 안에서도 연구자에게 지시하여 협주를 제안하는 등의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대상자는 음악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되었고, 연구자의 질문이나 화성 반주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자주 드러냈다. 또한 즉흥연주 과정에서 연구자가 갑작스럽게 소리의 산출을 낮춘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 및 즉흥연주의 끝맺음에서 잔여 소리의 산출 없이 깔끔하게 연주를 마무리하는 과정 등 대상자의 집중력이 소폭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O월부터 보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며 연구자의 손을 잡아준 점을 보아 상호작용의 긍정적 변화가 ‘무가치함’의 긍정적 변화 및 ‘집중력’의 향상에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3) 음악적 변화: 회피적인 연주에서 자율적인 연주로

대상자는 초기에 회피적인 연주를 수행한 모습들이 5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

용적인 연주로의 변화가 돌입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조금 더 세고 신나게 연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변측적인 화성과 악센트가 대입된 리듬을 활용하여 음악적으로 요청하였고, 대상자는 연구자의 반주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주의 중반부터 연구자는 힘을 실어주고 음악적으로 희망을 표현하였을 때, 대상자는 그 음악에 동요하고 점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템포의 변화로 분석할 수 있었다. 중기에서는 초기에 시행한 2음계의 사용을 넘어 5음계를 모두 활용하였고,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교차적으로 빠르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전보다 도전적인 연주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기 후반에서(9회기) 대상자는 연구자의 반주보다 더 큰 소리를 산출하기 위해 엄지를 적극 활용하여 힘 있는 연주를 선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즉,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템포와 리듬, 연구자의 반주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기술, 다이내믹 등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중기 단계(5-10회기)에서 발전된 음악적 기술이 후기(11-12회기)에 돌입한 이후 여유롭고 자율적인 연주를 구사하는 기술로 변화하였고, 연구자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유도 관찰되었다. 또한 손가락의 빠른 교차와 특정 음에서의 악센트의 사용이 그 동안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음악적 기술을 대상자가 학습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즉흥연주를 시행하기 전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활용하여 연주해볼테니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연주해주시오.”라며 지시하였고, 초기와는 상반되는 연주 기술을 수행하였다. 또한 즉흥연주가 끝날 때쯤 흑 건반을 사용했던 대상자가 돌연 하얀 건반을 연주하면서 도, 레, 미, 파, 솔의 교차적인 즉흥연주를 연구자에게 선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도, 레, 미, 파, 솔로 연주가 가능한 동요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였고, 대상자는 새로운 노래를 도전하려는 음악적 변화가 발현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존 음악치료 영역에서 선행되지 않은 수지 접합 대상을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음악치료 현상 안에서의 실례와 경험에 초점을 두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대상자

의 손 협응력의 향상과 더불어 우울감의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쳤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지 접합 환자의 손 협응력에 대한 Box & Block Test의 결과 논의이다. 연구자는 작업치료사를 고용하여 Box & Block Test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대상자는 사전-사후검사에서 우측 손 25.9%, 좌측 손 48.8%의 변화율을 보이며 손 협응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양적으로 도출 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중재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한 재활 동기와 연관되어진다. 수지 접합 환자가 수술 이후 가장 큰 불안감을 종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절단되었던 수지를 재가동하여 사물에 접촉하는 시도인데, 이러한 행위는 매우 도전적어야 한다(Conolly & Prosser, 2008). 대상자는 수술일자로부터 2주 뒤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사전 검사 기간 중 Box & Block Test를 측정하였을 때 접합 4수지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만을 기민하여 측정에 임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웨이트드 건반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타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접합 4수지가 건반에 대립하는 불안감을 최소화시켰다. 더불어 대상자의 가벼운 접촉에 의한 연주에도 큰 건반 사운드를 산출할 수 있는 음악치료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청각적 피드백과 과제 수행의 성공 경험을 도왔으며, 이와 같은 과정이 대상자의 재활 동기와 접촉 경험을 촉매하는 역할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사후 Box & Block Test에서 다섯 수지를 모두 활용하여 측정에 임하였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병원에 입원중인 뇌졸중 편마비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MIDI 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손 기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 Box & Block Test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준 신미희(201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경직형 뇌성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IDI 중심의 치료적 악기연주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우세 손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Box & Block Test에서도 기민성이 향상됨을 입증한 한송이(2011)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손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개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건반 악기가 수지 접합 대상자의 손 협응력 향상을 위한 치료적 매체로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에 의의를 둔다.

둘째, 수지 접합환자의 손 협응력에 대한 MIDI 타력 값 결과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측정 과제를 설정하여 연속하는 3회기마다 타력 값을 도출하기 위한 측정이 진행되었는데, 두 가지 과제 모두 회기가 거듭될수록 타력 값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이 연구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건반의 특성을 근거한 반복적인 훈련 및 수지 운동 패턴이 타력 값의 긍정적인 변화와 연관되어짐을 사료한

다. 연구자는 건반을 통해 기능을 상실한 대상자의 접합 4수지 소근육을 자극시켜 등척성 운동을 권장하고, 응고된 혈액으로부터의 부종을 예방하여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을 프로그램에 담았다. 또한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민요인 아리랑을 직접 연주하는 과정에서 촉발되는 여흥적인 요소도 타력 값 향상에 주요한 변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12회기 동안 반복하여 제공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훈련이 측정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출된 타력 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사료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두 번째 논의는 경직형 뇌성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IDI 중심의 치료적 악기연주 훈련을 실시하였을 때 우세 손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한송이(201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만성 뇌졸중 편마비 노인에게 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노인의 손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신은주(2012)의 연구를 지지한다.

셋째, 수지 접합 환자의 우울감에 대한 CES-D 검사 결과 및 단계별 내용분석 논의이다. CES-D 측정 검사와 단계별 내용 분석의 결과로 대상자의 우울감이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구의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의 기법 융합 및 연구자의 중재 기술과 연관되어진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수지가 절단되어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지만, 음악이라는 도구는 기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변화에도 도움을 주는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하여, 손 기능의 향상을 담당하는 NMT 기법과 우울감의 감소를 위해 시행되었던 즉흥연주 기법을 활동 안에서 잘 어우러지게 융합한 계획이 대상자의 손 협응력과 우울감의 변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음을 사료하고, 이러한 융합적 음악치료를 사용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시킴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는 우울성향의 여대생에게 즉흥연주를 제공하여 우울감과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 고민정(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간병인에게 타악기 중심의 자유즉흥연주 음악치료를 제공하여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윤이나(2017)의 연구를 지지한다.

연구 과정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의학 계열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증례보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발생되었다. 첫 번째, 수지 접합 환자는 만성 질환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절단상을 입은 재해환자라는 점을 생각해본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접합 수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이외의 물리치료 및 의학적 진료, 소독 등의 처치를 동시에 감당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야 하는

중증 환자라는 점을 보아 연구 결과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자가 증례보고로 지정하여 대상자가 느끼는 음악치료의 경험과 변화의 추이를 분석한 이유도 이러한 변수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수지 접합 환자의 입원 기간이 회복의 속도에 따라 수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 도중 퇴원 절차를 밟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생시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8회기와 9회기 사이에 퇴원 절차를 밟아 집에서 휴식 취하기, 등산하기, 기타 여가 활동을 통해 온전히 건반연주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변수가 발생되었다. 또한 우울감을 파악하기 위한 CES-D 측정 검사 결과에도 퇴원 절차를 밟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 변수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을 고한다. 또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에서 다각적인 우울감의 변수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세 번째, 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 프로그램의 짧은 회기수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구 디자인을 이룩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둘째, 본 연구는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을 수지 접합 환자에게 적용하여 손 협응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증례보고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치료적인 접근에 조작적인 중재를 더하였으므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모든 수지 접합 대상군에게 일반화 할 수 없음을 고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 대상을 확장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한 양적 연구를 설계하여 진행된다면 음악치료 영역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효과성을 입증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이 수지 접합 환자 이외의 다른 신체상의 변화에 기인한 화상환자,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등의 대상군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계한 실험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또한 건반연주 재활프로그램 안에서의 체계적으로 변인을 통제한 단일대상연구의 필요성을 요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민정(2008). 우울성향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대한 즉흥연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16). 2015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 김경훈, 최보람, 박춘선(2012). 급성기 뇌졸중 평가지표 확대 연구. 서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김수인(2000). 산업재해 환자의 삶의 질, 자살사고 및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현, 정원미(2004). 상자와 나무토막검사(Box and Block test)의 정상아동 표준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55-68.
- 대한수부외과학회(2014). 수부외과학. 서울: 범문에듀케이션.
- 문소영(2006). 건반악기연주 재활 기법. 정현주 (편). 음악치료의 기법과 모델. 서울: 학지사.
- 박광철(2002). 수지절단환자의 재접합시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은(2011). 치료적 악기연주 중재가 뇌성마비 아동의 상지 기능과 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7). 전문병원 지정기준.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_NU_ID=04&MENU_ID=0403&CONT_SEQ=315919&page=1 에서 2017년 10월 30일에 검색.
- 서문자(2004). 성인간호학 上. 파주: 수문사.
- 송경향(2003). 수지절단 재접합 환자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희(2015). MIDI 건반을 활용한 치료적 악기연주가 뇌졸중 편마비 노인환자의 손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2012). 건반을 활용한 만성 뇌졸중 편마비 노인의 손 기능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지지 완충 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기우(1995). 전신마취 수술환자의 수술전후 경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영(2009). 족욕 프로그램이 응급수지접합 환자의 수술 후 혈액순환, 통증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이나(2017). 타악기 중심의 자유즉흥연주 음악치료가 간병인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옥(2009). 음악치료가 노인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산휘(2015). 수부손상으로 인한 접합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원(2002). 음악 마인드 과학. 서울: 음악세계.
- 장철, 박성호, 김경희, 김민제, 이제영(2016). 손 기능 강화 훈련이 손의 기민성과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4, 77-87.
- 정욱희(2002). 음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우울감과 불안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권, 오명화(1999). 손 기능 훈련 프로그램이 뇌성마비아의 상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34, 85-99.
- 조맹제, 김계희(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은정(2016). 손가락 타력 평가를 위한 MIDI 기초연구: 20대에서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병철(2010). 음악치료학. 서울: 학지사.
- 최영실(2000). 사지 절단 재접합술 환자의 경험.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2002). 자기효능강화 뇌졸중 재활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송이(2011).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우세손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적 악기연주 훈련 적용 사례연구 : MIDI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인희(2013). 손가락 타력 평가를 위한 MIDI 표준치 연구: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륜, 김연희, 백남중(2008). 뇌졸중의 재활. 한태륜, 방문석(편). 재활의학. 서울: 군자출판사.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권준수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3 출판)
- Baker, F. A.(2000). Modifying the melodic intonation therapy program for adults with severe non-fluent aphasia. *Music Therapy Perspectives, 18*(2), 110-114.
- Conolly, W. B., & Prosser, R.(2008). 임상 손과 상지의 재활. (한국수부치료학회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3 출판)
- Fitts, P. M.(1964). *Perceptual-motor skill learning*. In A. W. Melton (Ed.), *Categories of human learning*. New York: Academic Press.
- Orr, D. A., Reznikoff, M. & Smith, G. M.(1989). Body image, self esteem, depression in burn injured adolescent & young adults. *J-Burn-Care Rehabil, 10*, 454-461.
- Samarel, N., & Fawcett, J.(1992). Enhancing adaptation to breast cancer: the addition of coaching to support groups. *Oncology Nursing Forum, 19*(4), 591-596.
- Thaut, M. H.(1999). *Music therapy in neurological rehabilitation*. In W. B. Davis, K. E. Gfeller & M. H. Thaut (Eds.). *An Introduction to Mus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2nd Ed.)*. New York. Mc Graw-Hill College.
- Thaut, M. H.(2005). *Rhythm music and the brain: scientific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NY: Rout ledge.
- Thaut, M. H.(2009). 리듬, 음악, 그리고 뇌. (차영아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Unkefer, R. F. & Thaut, M. H.(2002). *Music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St. Louis, MO: MMB Music.
- Waller, S. M & Whitall, J.(2008). Bilateral Arm Training: Why and Who Benefits?. *Neuro Rehabilitation. 23*.
- Wigram, T.(2006). 즉흥연주: 음악치료 임상전문가, 교육자 및 학생들을 위한 치료 방법과 기술. (김귀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4 출판)

〈Abstract〉

The Effects of Keyboard-Playing Rehabilitation Program on Hand Coordination and Depression for a Patient with Finger Micro-Replantation

Yang, Su-A · Moon, So-Young

Pungnap Social Welfare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keyboard-playing rehabilitation program on hand coordination and the mental well-being of a patient, after amputated finger micro-replant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65-year old male patient who had the 4th finger on his left hand cut off in an industrial accident. The case report was carried out over six weeks. The patient received therapy in 50 minute sessions twice a week for total of 12 sessions. This program was comprised of ‘PSE-based hand coordination training’, ‘black keyboard improvisation’, and ‘TIMP-based Arirang numerical score’. Box & Block Test and MIDI Program were used to measure the change of hand coordination, CES-D was used to measure the change of depression, and session content analysis was added to both variables. As a result, when it comes to the finger amputation micro-replantation patient, a positive result was shown to the coordination ability of injured hand in the pre-post ‘Box & Block Test’, and in the measurement of ‘percussing skill value through MIDI program’, the result that the percussing skill value of the injured hand was improved was drawn. In ‘CES-D’ evaluation, the result that the depression declined when the pre-post comparison was carried out was drawn and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that the hand coordination and the depression of the subject changed positively depending on each category. Hereb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the keyboard-playing rehabilitation program can be an affective therapeutic re-treatment hand coordination and the patient mental well-being following amputated

finger micro-replantation.

Keyword: Keyboard-Playing Rehabilitation Program, Patient with Finger Micro-Replantation, Hand Coordination, Depression

학령 후기 아동의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

남보라*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이타성 발현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및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및 전남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385명(남아 218명, 여아 167명)이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t 검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의 성차를 살펴 본 결과, 대인관계성향별로 성차가 나타났으며 또래압력의 하위영역에 따라 여학생이 받는 또래압력이 더 높았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의 분위기가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타 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타성 발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성향은 동정-수용, 독립-책임, 지배-우월이었다. 이타성의 발현을 예측하는 또래압력은 또래눈치, 또래유행, 일상활동이었으며 학교분위기는 모든 영역에서 이타성의 발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이타성,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

*교신저자: 남보라(ls23nbr@gmail.com)

■ 게재 신청일 : 2018년 7월 16일 ■ 최종 수정일 : 2018년 8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8월 1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 후기는 부모에게 의존했던 가족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화를 이루어가게 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자신만의 가치관과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개별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학교 지도는 대체로 학생들의 건강하지 못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한정혜, 2012),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행동양식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타성(altruism)은 “타인에게 유익함을 주는 행위로서 행위자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보상을 얻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려는 것”(Staub, 1978)으로, 다른 종(種)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Bar-Tal(1976)은 “이타성은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수행된 자발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하였고, 천영옥(1996)은 이타심을 “어떤 형태로든 남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남을 돕고자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실제적 행동과 타인의 안녕을 위한 동기 두 측면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타성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타인에게 도움주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아동은 학교 행복감을 높이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서민지, 2015), 교우, 교사관계, 학습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생현, 1993; 천영옥, 1996). 김은정(2016)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사회적 성향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고하였다. 이타행동은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정혜(2012)의 연구 또한 이타 행동의 하위 요인인 공감, 협력의 수준이 높을 때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타성의 중요한 하위영역인 공감능력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유승민, 2010; 이선희, 2018에서 재인용).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타성이 높을수록 집단괴롭힘 상황에서 방관 행동은 적게 하고 방어 행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궁미, 2015; 김동옥, 유제민, 김청송, 2017) 이타성이 아동기 또래집단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얼마나 집단의 성원으로 부터 존경받고 수용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을 볼 때(송명자, 2008),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아는 것은 아동의 학교 적응 뿐 아니라 아동이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타행동은 다양한 요인을 통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arabany와 Bar-Tal(1982)은 이타성의 발달을 네 가지 관점-진화론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사회학습, 인지발달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통합적 틀 안에서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개념임을 보고하였다. 채현탁(1998)은 이타행동의 결정요인을 유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규범 요인, 상황 요인, 인지 및 정서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신수정(2000)은 이타행동 발달의 결정 요인을 유전적 요인, 개인 특성 및 상황 특성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인지적 요인(조망수용능력), 정의적 요인(공감) 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타성의 발현은 어느 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 홍성례(2012)는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을 꼽았다. 또한 이지연(2005)은 이타주의자들의 지닌 심리적 특성으로 지속성과 끈기, 자기효능감, 공감, 사회적 책임감 등을 제시하여, 이타행동의 발현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타성이 상황과 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Barclay와 Willer(2007)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의해 관찰되는 상황일 때 좀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Kawamura와 Kusumi(2018)의 연구 또한 친구 및 낯선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타행동의 경우, 이타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신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을 때 보다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이타성이 개인 내적 변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발현 요인을 가진 개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의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요소들이 이타행동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학령후기 아동의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소는 또래 요인일 것이다. 이 시기의 학교와 또래에게서 받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은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이렇게 결정된 행동은 이후의 청소년기를 지내는 기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타성의 발현은 사회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또래 안에서의 규칙과 평가는 이타적인 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래의 규칙,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이타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래압력(Peer Pressure)이란 또래가 규정한 어떤 지침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으로서(김하연, 1991; 권순학, 2001에서 재인용), 사회 규범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압력은 비행행동, 또래 괴롭힘 동조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져 왔으나(조운주, 정옥분, 2009; 신혜선, 1999), 이인태(2016)는 또래 압력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규범적 성격의 또래 압력이 친사회적 행동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또래압력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Brown과 Ciasen(1985)은 청소년들이 또래압력을 인식하는 영역을 또래관련, 학교관련, 가족관련, 또래 규범 준수 및 비행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또래관련 영역에서 느끼는 압력은 학교나 가정 영역에서 느끼는 압력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또래에서 느끼는 압력은 반사회적 행동을 격려할 수도, 제어할 수도 있음을 보고하였다. Baruah와 Prerana(2016)는 누군가를 돕거나 운동 팀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에 대한 또래의 격려가 긍정적인 또래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며, 행동 수정 영역에서 또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행동 장애가 있는 미취학 아동과(Fowler & Smith, 1985) 초등학생(Sandler, Arnold, Gable & Strain, 1987)의 문제행동이 또래압력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 압력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또한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데, 학교의 환경, 즉 교사와의 의사소통, 학교의 교칙 및 이를 이행하는 학교의 태도,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수용도 및 긍정행동에 대한 강화 등이 학생들의 이타행동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학교는 이타행동을 습득하는 강화와 학습의 장이 되며, 교칙과 방향성을 가진 사회규범적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분위기(School Climate)라는 용어는 위의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조직의 특성과 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김은영, 2008). 학교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긍정적 역량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기보아(2017)의 연구에서 학교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각하는 중학생들은 유능감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Thapa, Cohen, Guffey와 Alessandro(201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학교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아동 및 청소년 발달, 효과적인 위험 예방 및 건강 증진, 학생 학업 성취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타성 발현에 학교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은, 아동의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 요인을 알고 그에 따른 학교 차원의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한편 학교환경 안에서 이타성의 발현은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생각해 볼 때, 학령 후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성향은 아동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성향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갖게 되는 생각, 느끼게 되는 감정, 표현되는 행동 및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양상으로, 성향에 따라 적응 및 정신건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범희(1984)는 Leary, Kreach, 그리고 Schutz의 연구에서 공통된 이론을 반영하여 대인관계 성향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작하였다. 모형은 크게 3 영역(역할, 사회관계, 표현) 총 7개 요인(지배-우월,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호, 경쟁-공격, 과시-도취, 반항-불신)으로 나누어지며, 이후 이루어진 대인관계성향에 관련된 국내 검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목지윤(2009)은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으며, 사교-우호, 과시-도취 성향은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정-수용, 독립-책임 성향은 학교 규칙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종은(2012)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배-우월, 독립-책임 성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이 높으며, 동정-수용, 사교-우호 성향은 학업과 사회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서형래(2016)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일수록 독립-책임, 동정-수용, 사교-우월, 과시-도취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수록 지배-우월, 경쟁-공격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 시기에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성차(性差)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이타성 발현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천영옥(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성역할의 변화에 의해 성차가 희미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연구들(이현숙, 1999; 박지숙, 박영신, 2013)에서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타성 발현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인관계 성향 또한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성별에 따라 각 차원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안범희, 1984; 채승희, 2003; 목지운, 2009; 김희숙, 2016)와 성별에 따라 각 차원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송여옥, 2002)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또래압력의 경우, 권순학(2001)은 또래압력의 하위영역 혹은 문항별로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유애형(2014), Brown과 Ciasen(1985)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또래압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 분위기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성차에 대한 추가 연구와 더불어, 성별에 따른 학령 후기 아동의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또래, 학교 요인과 함께 아동이 가지는 개인적 특징으로 성별과 대인관계성향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타성 발현의 내외적 결정요인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독립변인 각각이 여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로 나타내는 특징이 다른 것에 주목하여, 독립변인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 후기 아동의 이타성,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 지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 후기 아동의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지각된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및 전남 소재 5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아동 3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남아 218(56.6%)명, 여아 167(43.4%)명이었으

며, 수거된 질문지 중 부실 응답 3부를 제외하고 3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6학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고 도덕성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갈등과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이며(이로미, 2012) 학령으로는 아동이면서 교사와의 갈등, 또래 집단 동조경향, 질서외의식의 저하 등의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본격화된다(권정은, 2011). 이렇듯 자신만의 가치가 확립되고 또래 및 집단이 중요해지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도구

가. 대인관계성향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범희(1984)가 제작한 대인관계성향 검사를 박수영(2005)이 요인분석 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대인관계 성향을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역할성향은 지배-우월, 독립-책임의 2개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성향은 동정-수용, 사교-우호의 2개 요인으로, 표현 성향은 경쟁-공격, 과시-도취의 2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각 요인별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배-우월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장적이고 독단적이며, 반대로 낮을수록 복종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독립-책임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판단적이고 책임의식이 철저하며, 낮은 사람은 의존적인 특성을 보인다. 셋째, 동정-수용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허용적이고 포용력이 있으나 낮은 사람은 비동정적이고 거부적이다. 넷째, 사교-우호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하고 동조적이며 낮은 사람은 비사교적이고 냉정하다. 다섯째, 경쟁-공격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간섭을 싫어하고 비판적이며, 낮은 사람은 경쟁을 싫어하고 비공격적이다. 여섯째, 과시-자기도취 요인이 높은 사람은 자기 노출을 잘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나 반대로 낮은 점수의 경우 자기 폐쇄적이고 자아 의식적임을 의미한다.

척도는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지배-우월 성향은 .60, 독립-책임 성향은 .76, 동정-수용 성향은 .84, 사교-우호 성향은 .81, 경쟁-공격 성향은 .76, 과시-도취 성향은 .69로 나타났다.

나. 또래압력

아동의 또래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nder가 제작한 TTQ(Tough Turf peer pressure Quiz)를 권순학(2001)이 수정하고 유지연(2017)이 척도 순화와 요인분석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일탈행동, 또래눈치, 또래유행, 일상활동 4개의 하위 요인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압력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일탈행동’은 또래들과 함께 무질서한 행동을 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고 ‘또래눈치’는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래유행’은 또래 사이의 유행을 따라가는 정도를 의미하고, ‘일상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또래에게 동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일탈행동은 .77, 또래눈치는 .70, 또래유행은 .76, 일상활동은 .57로 나타났다.

다. 학교분위기

학교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Benbenishty, Astor, Zeira와 Vinokur(2002)가 사용한 척도를 김은영(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교칙의 명료성과 학교정책의 일관성, 학생들의 학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참여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원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응답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 역문항으로 바꿔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상호작용)은 .83, 교칙의 명료성과 정책의 일관성(교칙정책)은 .88,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참여(의사참여)는 .85로 나타났다.

라. 이타성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바텔(Bal-tal)의 돕기상황 검사 척도를 참고하여 천영옥(1996)이 사용한 척도를 이현숙(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감, 조력, 협력 세 하위요인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나 조건에 일치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용남, 김은아, 2013)을 말하며, 조력은 ‘도움, 또는 도움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이나 문제에 힘을 보태거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그리고 협력은 ‘여러 명이 공통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용남, 김은아, 2013), 구성원간에 서로 격려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행동’(이현숙, 1999)을 말한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공감 .72, 조력 .74, 협력 .78 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타성 발현에 대한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남녀 두 집단 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성향($t=2.001, p<.05$)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정-수용($t=-4.745, p<.001$), 과시-도취($t=-4.797, p<.001$)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래압력 하위영역에서는 또래눈치($t=-3.040, p<.01$), 또래유행($t=-5.638, p<.001$), 일상활동($t=-2.905, p<.01$)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 일탈행동을 제외한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또래압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학교분위기 하위영역에서는 상호작용($t=-3.400, p<.01$), 교칙정책($t=-3.065, p<.01$), 의사참여($t=-2.666, p<.01$)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이타성 또한 공감($t=-3.193, p<.01$), 조력($t=-4.864, p<.001$), 협력($t=-3.617, p<.001$)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결과(N=370)

종속변수	남	여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대인관계 성향	지배-우월	5.61(1.80)	5.24(1.74)	2.001*
	독립-책임	8.26(2.11)	8.55(2.01)	-1.374
	동정-수용	22.01(4.31)	24.07(3.97)	-4.745***
	사교-우호	23.13(4.99)	24.07(4.37)	-1.896
	경쟁-공격	14.53(3.91)	14.15(4.01)	.941
	과시-도취	8.07(2.49)	9.34(2.61)	-4.797***
또래압력	일탈행동	10.14(3.77)	9.52(3.96)	1.533
	또래눈치	12.77(3.90)	14.07(4.37)	-3.040**
	또래유행	6.23(2.70)	7.75(2.48)	-5.638***
	일상활동	7.83(2.77)	8.67(2.88)	-2.905**
학교 분위기	상호작용	17.77(3.64)	19.01(3.27)	-3.400**
	교칙정책	28.67(5.02)	30.21(4.53)	-3.065**
	의사참여	9.64(2.00)	10.18(1.88)	-2.666**
이타성	이타_공감	16.07(3.76)	17.21(2.93)	-3.193**
	이타_조력	14.10(3.40)	15.79(3.24)	-4.864***
	이타_협력	15.82(3.74)	17.16(3.27)	-3.617***

* $p<.05$, ** $p<.01$, *** $p<.001$

2.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타성 발현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므로, 성별을

더미변환하여 독립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독립변인을 하위 요인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 3, 그리고 4에 각각 제시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 공감

공감의 경우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beta=.392, p<.001$), 독립-책임($\beta=.129, p<.05$)과 학교분위기 중 상호작용($\beta=.213, p<.01$), 의사참여($\beta=.182, p<.01$)는 공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beta=-.143, p<.01$), 학교분위기 중 교칙정책($\beta=-.157, p<.05$)은 공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을 예측함에 있어서 동정-수용($\beta=.392$)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상호작용($\beta=.213$), 의사참여($\beta=.182$), 교칙정책($\beta=-.157$), 지배-우월($\beta=-.143$), 독립-책임($\beta=.12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동정-수용 성향이 높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학교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참여가 높을수록 공감행동을 많이 보이고, 교칙의 명료성과 학교 정책의 일관성이 높고 지배-우월 성향이 높을수록 공감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공감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069	1.366		.783	
대인 관계 성향	지배우월	-.278	.101	-.143	-2.768**
	독립책임	.218	.097	.129	2.251*
	동정수용	.306	.059	.392	5.160**
	사교우호	-.024	.054	-.034	-.452
	경쟁공격	.069	.046	.079	1.512
	과시도취	.107	.080	.081	1.330
	또래 압력	일탈행동	.074	.049	.081
또래눈치		.060	.043	.072	1.390
또래유형		.066	.074	.051	.903
일상활동		.111	.064	.092	1.717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069	1.366		.783
학교 분위기	상호작용	.211	.071	.213	2.986**
	교직정책	-.111	.055	-.157	-1.997*
	의사참여	.321	.115	.182	2.776**
성별		.141	.334	.020	.423

$F=18.520(p<0.001)$, $R^2=.470$, $adjR^2=.445$, $D-W=2.050$

* $p<.05$, ** $p<.01$, *** $p<.001$

나. 조력

조력의 경우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beta=.407$, $p<0.001$), 독립-책임($\beta=.192$, $p<0.01$), 또래압력 중 일상활동($\beta=.156$, $p<0.01$), 또래유행($\beta=.134$, $p<0.05$), 학교분위기 중 상호작용($\beta=.228$, $p<0.01$)이 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을 예측함에 있어서 동정-수용($\beta=.407$)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상호작용($\beta=.228$), 독립-책임($\beta=.192$), 일상활동($\beta=.156$), 또래유행($\beta=.13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동정-수용 성향이 높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독립-책임 성향이 높을수록, 일상활동과 또래유행에서의 또래압력이 높을수록 조력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820	1.362		1.337
대인 관계 성향	지배우월	-.127	.100	-.067	-1.275
	독립책임	.319	.096	.192	3.315**
	동정수용	.316	.059	.407	5.348***
	사교우호	-.095	.053	-.133	-1.779
	경쟁공격	.017	.046	.020	.375
	과시도취	.004	.080	.003	.048
	또래 압력	일탈행동	-.052	.049	-.058
	또래눈치	.066	.043	.081	1.526
	또래유행	.171	.073	.134	2.356*
	일상활동	.183	.064	.156	2.853**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820	1.362		1.337
학교 분위기	상호작용	.222	.070	.228	3.145**
	교칙정책	-.082	.055	-.119	-1.475
	의사참여	.112	.115	.065	.973
성별		-.171	.333	-.025	-.514

F=17.289(p<0.001), R²=.452, adjR²=.425, D-W=1.922

*p<.05, **p<.01, ***p<.001

다. 협력

협력의 경우 대인관계성향 중 동정-수용($\beta=.405, p<0.001$), 또래압력 중 또래눈치($\beta=.107, p<0.05$), 일상활동($\beta=.126, p<0.05$), 학교분위기 중 상호작용($\beta=.212, p<0.01$) 이 협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beta=-.170, p<0.01$)이 협력을 부적적으로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협력을 예측함에 있어서 동정-수용($\beta=.405$)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상호작용($\beta=.212$), 지배-우월($\beta=-.170$), 일상활동($\beta=.126$)순으로 나타나, 아동의 동정-수용 성향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지배-우월 성향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또래압력이 많을수록 협력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협력에 대한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540	1.461		1.054
대인 관계 성향	지배우월	-.343	.108	-.170	-3.183**
	독립책임	.160	.104	.091	1.537
	동정수용	.330	.064	.405	5.175***
	사교우호	-.045	.058	-.060	-.783
	경쟁공격	.044	.049	.048	.902
	과시도취	.169	.086	.123	1.967
	일탈행동	.059	.053	.063	1.114
또래 압력	또래눈치	.092	.046	.107	1.987*
	또래유행	.025	.078	.018	.319
	일상활동	.157	.069	.126	2.277*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540	1.461		1.054	
학교 분위기	상호작용	.217	.076	.212	2.860**
	교직정책	-.078	.059	-.107	-1.309
	의사참여	.170	.123	.094	1.381
성별		.289	.358	.040	.807

F=16.055(p<0.001), $R^2=.434$, $adjR^2=.407$, D-W=2.050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이타행동 발현과 관련된 개인 내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의 차이

학령 후기 아동의 이타성,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 동정-수용, 과시-도취 성향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 성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정-수용, 과시-도취 성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배-우월 성향이 높음을 보고한 장순자(1989), 임동숙(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과시-도취 성향과(조미연, 2012) 동정-수용 성향(김은정, 2001; 신만철, 1992)이 높게 나타난 여러 연구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하여, 성별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범희(1984)는 과시-도취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고하였고, 송여옥(2002)은 대인관계성향에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가 연구 대상과 연구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른 일반화된 경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래압력의 경우 또래눈치, 또래유행, 일상활동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민경(2010)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신체와 외모에 관련된 또래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사회적 가치기준으로 내면화하며 절식(Dieting)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여, 또래의 유행과 관련되어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래눈치와 일상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차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집단 내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또래에게 더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도금혜, 2008; 조수현, 2013에서 재인용) 그로 인하여 또래 집단 내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분위기는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많고 학교 교칙 및 정책이 명료하며 학교정책 결정 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영(2008)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교칙의 명료성과 학교 정책의 일관성’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교분위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학교 만족도와 학교 적응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기보아, 2017),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분위기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화련(2017)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조병남(2009)의 연구에서 교사관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중요한 부분으로, 성별에 따른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타성의 모든 하위영역-공감, 조력, 협력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천영옥(1996), 이생현(1993), 이현숙(2000)의 연구와 같다.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조건 없이 남을 돕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정서를 보이며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으며, 여아들이 대인관계에서 따뜻하고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를 요구받는 특징을 가진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Bakan, 1996; Spence et al., 1979, Bierhoff, 2002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보이는 성차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 더 동정

적이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며, 또래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더 받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학령 후기 아동의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가 이타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타성 하위영역 중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정-수용 성향,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교정책에 대한 의사참여, 지배-우월 성향, 독립-책임 성향으로 나타났다. 이타성 하위영역 중 조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정-수용 성향, 교사와의 상호작용, 독립-책임 성향, 일상활동 및 또래유행 또래압력으로 나타났으며, 이타성 하위영역 중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동정-수용 성향, 교사와의 상호작용, 지배우월 성향, 또래눈치 및 일상활동 또래압력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성향 변인은 동정-수용, 독립-책임, 지배-우월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수용은 이타성의 세 하위영역인 공감, 조력, 협력의 발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다른 이를 돕고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이타성의 특성이 발현되는데 동정-수용 성향의 특징인 포용성, 관용성, 보호성 등이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박서영(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동정을 느낄수록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독립-책임 성향은 자립적이고 책임의식이 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보고한 것과 같이 조력행동은 책임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복지에 중요하다고 느낄 때 발현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독립-책임 성향의 속성과 일치한다. 또한 독립-책임 성향은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특징을 지니는데(목지윤, 2009), 학교규칙은 대부분 돕기행동을 권장하고 규범화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학습할 때 정서적인 기술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 또한 필요하며, 그와 동시에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대인관계성향 중 지배-우월 성향이 낮을수록 공감과 협력이 많이 발현되었다. 이타성 영역 중 공감과 협력은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대인관계에서 지시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권위적인 지배-우월 성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특성을 지닌다. 김동욱, 유제민, 김청송(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지배성은 정서적 공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며 또래관계 내에서 신체적, 관계적 공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변인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또래압력은 이타성 발현을 부분적으로 예측하였다. 또래압력의 하위요인 중 일상활동과 또래유행은 조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눈치와 일상활동은 협력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독립적 성격을 가진 또래압력의 경우, 학교 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 또래압력이 다차원적 성격을 가지며 또래행동과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신희영(2015)의 연구에서 아동들은 친사회적 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친구들을 선택하며 친구의 영향을 받아 더욱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됨을 밝히고 있는데, 학교 환경에서 또래 집단의 형성과 집단 내적 가치관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분위기 중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학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참여가 많을수록 이타성이 많이 발현되었다.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이타성의 세 하위요인인 공감, 조력, 협력을 모두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교사와의 의사소통, 교사에게 존중받는다느 느낌과 친밀감, 신뢰감, 학교정책 결정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등이 이타적 행동을 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을 국제비교한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정서측면의 기대가 크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학력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교사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크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정준희(2012) 또한 교사와 맺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친사회적 행동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정책 결정과 의견 반응에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학교 분위기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교사들이 지각하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때, 학교 내 이타행동을 비롯한 적응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분위기 중 교칙정책은 공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학교의 교칙과 정책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경우 오히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발현되는 이타행동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Wissink, Decovic 외(2014)는 Hoffman(2000)의 연구를 인용하여, 강한 처벌 기반의 지도방식이 친사회적 행동을 덜 하게 하고 비행, 부정행위 등의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반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 분위기의 여러 요인과 적응적 기제에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이타행동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서 이타성 발현의 다차원적 요인을 확인하고, 긍정적 행동 증진을 위한 지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이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성향을 찾고 성차를 앎으로서, 학생들의 대인관계특성 중 이타행동을 증진시키는, 혹은 이타행동 발현을 저해하는 요소를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타행동 증진에 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타행동 발현에 또래 및 학교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밝히고, 학교분위기와 또래압력을 세분화 하고 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와 또래의 긍정적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타성 발현과 관련된 개인 내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성별, 대인관계성향, 또래압력, 학교분위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이 발달적으로 여전히 가정의 영향력이 큰 시기임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은 또래 이전에 만나게 되는 사회이며, 개인 내적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요인들과 함께 가족 요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아동의 이타적 행동의 발현과 학교 적응을 위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압력의 차원을 세분화하고, 또래압력이 요인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또래압력의 다차원적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은 어려우며,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점은 아쉽다. 학교분위기의 세 요인 또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화 하는 것은 위험하며, 추가 연구를 통하여 보다 일관된 특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 대인관계성향 및 또래압력, 학교분위기의 여러 영역이 이타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타행동을 증진시키고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 프로그램 및 교사지도 등의 행동지침이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민경(2010). 또래압력,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및 체중조절 효능감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학(2001). 중학생들의 또래압력(Peer Pressure)에 관한 인식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은(2011).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소진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보아(2017). 한·중 중학생들이 지각한 학교 분위기, 유능감, 학교 만족도 및 학교 적응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유제민, 김청송(2017). 청소년의 지배성, 사회성, 공감 및 이타성이 집단괴롭힘의 방관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7), 333-352.
- 김은영(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과 등교공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와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6).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표현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은(2012). 아동의 대인관계 지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부모자녀관계, 교사 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숙(2016). 유아의 사회적 힘과 대인 관계성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궁미(2015). 학교 폭력의 방관방어 행동, 애착 및 이타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화련(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동조성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목지윤(2009). 초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 지각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영(2012). 청소년의 정서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숙, 박영신(2013). 독재자 게임으로 살펴 본 아동의 이타적 행동의 발달, 성차와 조망 수용의 역할.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6(1), 167-186.
- 송명자(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여옥(2002).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민지(2015). 학령 후기 아동의 감사성향과 친사회적 행동이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형래(2016). 유아의 대인관계성향과 놀이유형 및 유아교육기관 적응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만철(1992). 아동기의 열등감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2000). 청소년을 위한 이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하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선(1999). 부모·친구 요인이 청소년 음주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영(2015). 초등학생의 친구 관계가 학교 폭력 행동 및 이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 상담의 중요성. 한국초등교육, 26(3), 219-235.
- 안범희(1984).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 검사의 타당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애형(2014).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거부민감성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2017).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스마트폰사용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로미(2012).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생현(1993). 아동의 이기심과 이타심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18). 부모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과 이타성의 중다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남, 김은아(2013). 인간 특성과 교육. 학지사.
- 이인태(2016). 규범적 또래 압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의 매개 효과. 도덕윤리과교육, 53, 21-44.
- 이지연(2005). 이타주의자들의 심리적 특성.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현숙(1999).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숙(2000). 중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순자(1989). 중학생의 욕구수준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연(2012).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병남(2009).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희(2012). 중학생의 대상신뢰와 교사애착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현(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애착이 1년 후의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 정옥분(2009). 청소년의 동조적 또래괴롭힘에 대한 매개된 조절모형 검증 : 또래동조성의 작용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3), 91-111.
- 조효진(2006).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7(1), 1-9.
- 채승희(2003). 교사-학생의 의사소통유형과 학생의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현택(1998). 중학생의 이타행동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 공감 훈련 기법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영옥(1996). 아동의 이기심과 이타심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 및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201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이타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71-92.
- 한정혜(2012). 중학생의 긍정적 착각과 이타 행동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rclay, P. & Willer, B.(2007). Partner choice creates competitive altruism in humans. *Department of Neurobiology & Behaviour*, 274, 749-753.
-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 theory and research*. NY: Wiley Press.
- Sharabany, R. Bar-Tal, D.(1982). Theories of the development of altruism: review, comparison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 49-80.
- Baruah, Prerana, B. & Binny, B.(2016). Positive peer pressure and behavioral support.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Hisar*, 7(2), 241-243.
- Benbenishty, R., Astor, R. A., Zeira, A. & Vinokur, A.(2002). Perceptions of violence and fear of school attendance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Israel. *Social Work Research* 26(2), 71-87.
- Bierhoff, H. W.(2002). *Prosocial Behavior*, NY: Psychology Press.
- Brown, B. B. & Ciasen, D. R.(1985). The Multidimensionality of Peer Pressure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6), 451-468.
- Hoffman, M. L.(2000). *Empathy and it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wamura, Y. & Kusumi, T.(2018). Relationships between two types of reputational concern and altruistic behavior in daily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19-24.
- Sandler, A. G., Arnold, L. B., Gable, R. A. & Strain P. S.(1987). Effects of Peer Pressure on Disruptive Behavior of Behaviorally Disordered Classmates. *Behavioral Disorders*, 12(2), 104-110.
- Smith, L. K. C. & Fowler, S. A.(1985). Positive peer pressure: The effects of peer monitoring on children's disrupt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451-468.
- Staub, E.(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NY: Academic Press.
- Thapa, A., Cohen, J., Guffey, S. & Alessandro, A. H.(2013). A Review of School

Climate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83(3), 357-385.

Wissink, I. B., Dekovic, M., Stams, G. J., Asscher, J. J., Rutten, E. & Zijlstra, B. J. H.(2014). Moral Orientation and Relationships in School and Adolescent Pro- and Antisocial Behaviors: A Multilevel Study.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0(3), 216-225.

〈Abstract〉

**The Effect of Gender,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Peer Pressure, and School Climate on Children's Altruism**

Nam, Bo-ra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ex,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peer pressure, and school climate on Children's Altruism.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8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Gyung Gi and Jeonnam Province, Ko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cs, independent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according to interpersonal tendency, and the peer pressure of the female students was higher according to the sub - region of peer pressure. In addition, the female students feel that the atmosphere of the school is better than the male students, and they are showing more altruism.

Second, The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which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ression of altruism was compassion-acceptance, independent-responsible, dominance-ascendance. Noticed peers, peer fashion, daily activities predicted the appearance of altruism, and school clim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appearance of altruism in all area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ression of altruism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Key words: Altruism, Relation Disposition, Peer Pressure, School Climate

4, 5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주도 상호작용(CDI) 효과성 연구

임선자* · 선우현
나래울아동상담소 · 명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4, 5세 아동과 모를 대상으로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PCIT)의 일부인 아동주도 상호작용(CDI)을 실시하고, 참여한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싶은 모-아동 5쌍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4주간 CDI 프로그램을 5명의 모를 대상으로 직접 코칭하고 아동주도 놀이상황에서 치료 전과 후 평가용 DPICS 코딩 기록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교사를 통해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을 사전사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PCIT의 CDI 코칭을 통해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심어 : 아동주도 상호작용(CDI: Child-Directed Interaction),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놀이성, 사회성, 또래유능성

* 교신저자: 임선자(ologim@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8년 7월 20일 ■ 최종 수정일 : 2018년 8월 10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8월 12일

I. 서론

어머니의 땃줄을 통해 생존해 온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서도 오랜 기간 양육자에게 의존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의존의 시기에 부모는 따뜻한 돌봄과,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공급하며 안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양육 환경이다. 특히 유아기는 인지적 미숙으로 인해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 또래의 영향력이 큰 아동·청소년기에 비해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는 미취학 아동이 취학 이후 아동보다 또래나 교사의 영향을 덜 받고 대신 부모의 관심에 더 반응적이므로 부모의 상호작용 변화가 아동의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Eyberg, Schuhmann & Rey, 1998).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의 적응적 행동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Bates, Bayles, Bennett, Ridge, & Brown, 1991; Patterson, 1982;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적응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치료기법에 있어 최근에는 부모를 치료에 포함시키는 치료기법의 추세가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 이뤄지고 있다(백지은, 2012).

부모를 치료에 포함시키는 놀이치료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기본 기술인 반영적 반응과 치료적 제한 설정을 교육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장면을 지도 받음으로서 부모-자녀관계증진을 도모하고 양육 효증감을 갖게 되는 부모-자녀 놀이치료(Filial Therapy; FT), 아동의 공동주의(joint attention) 주도성(initiation) 및 자기-조절(self-regulation) 등 아동발달에 근본이 되는 중심축행동과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모델링, 시연, 비디오 피드백과 코칭방법을 이용하여 부모가 효과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반응성 상호작용 치료(Responsive Teaching Interventional Outreach; 이하 RT), 가족을 대상으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치료 개입해나가는 가족치료와 놀이치료의 접목 형태인 가족놀이치료, 부모가 치료자와 아동의 치료 장면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습득하고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형성을 돕는 치료놀이(Theraplay)와 부모와 아동 그리고 치료자가 바닥으로 내려와 놀이하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코칭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하루에 20분씩 6-8회 정도 일대일의 놀이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놀이발달 수준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아동이 높은 수준의 발달적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플로어타임(DIR Floortime®) 등이 있다. 또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이하 PCIT)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켜주는 부모참여

치료프로그램으로서 Baumrind(1966, 1967)의 돌봄(nurturance)과 제한설정(limits)을 통해 양육하는 권위 있는 양육(authoritative parenting)을 실천한다. PCIT는 임상심리학자인 Sheila Eyberg박사가 행동치료의 효과적 요소, 전통적인 놀이치료의 요소, Hanf의 두 단계 부모훈련코칭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개발한 근거기반(evidence-based) 단기 치료프로그램으로 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미취학아동(만2-7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PCIT는 아동주도 상호작용(Child-Directed Interaction; 이하 CDI)단계와 부모주도 상호작용(Parent-Directed Interaction; 이하 PDI)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CDI 단계는 PDI 단계를 위한 기초로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PDI 단계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과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훈육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CDI 단계에서는 부모는 비지시적인 상호작용 기술들을 배우고 자녀와의 놀이시간에 따뜻함, 반응성, 관심 및 칭찬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이정숙, 두정일, 2008). 또한 CDI 단계는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을, PDI 단계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비중 있게 활용하였다. 애착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필요로 할 때 부모로부터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느끼고 감정과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아동의 파괴적 행동은 부모의 강화에 의하여 발달하고 유지되는데 부모의 강화란 부정적 관심을 제공하는 것과 부모의 요구를 피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유니, 2013).

다른 부모 참여 치료프로그램과 차별화 되는 PCIT의 첫 번째 장점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의 코칭을 현장에서 바로 습득하도록 돕는 직접코칭이다. 둘째로 부모가 배운 기술을 가정에서 매일 5분씩 시행하는 숙제하기를 통해 부모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매회기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5분씩 코딩하여 부모가 배운 기술을 점검하며,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관찰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코칭이 가능하다 넷째,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수용하며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방식으로 자신감이 부족한 부모를 직접 모델링 해주는 것이다. 다섯째, 매 회기 뚜렷한 목표가 제시된 매뉴얼화 된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명확한 코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PCIT의 목표가 부모에게는 아동과 좀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자녀에게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며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문제유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Eyberg, 2005). 그에 따라 PCIT는 파괴적인 행동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증거기반 심리사회적 치료(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 EST)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확인되었다(Calzada, Eyberg, Rich, & Querido, 2004; Eyberg, Nelson, & Boggs, 2008; McNeil, Capage, Bahl, & Blanc, 1999). 그 외에도 적대적 반항장애(Chase & Eyberg, 2008),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Matos, Bauermeister, & Bernal, 2009), 자폐스펙트럼장애(Masse, McNeil, Wagner & Chorney, 2007), 분리불안장애(Choate, Pincus, Eyberg & Barlow, 2005), 만성적 질병이나 의학적 문제가 있는 아동(Bagner, Fernandez, & Eyberg, 2004), 방임된 아동(Mcrae, 2003),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가족(Urquiza, 1996),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Gat, 2007)과 행동문제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McDiarmid & Bagner, 2005)에게 실시하였을 때에도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PCIT가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 내재화 문제 등 행동문제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향상, 어머니의 양육적인 민감성의 증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Eisenstadt, Eyberg, McNeil, Newcomb & Funderbuka, 1993; Thomas & Zimmer-Gembeck, 2007; Philips, Morgan, Cawthorne, & Barnett, 2008).

파괴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PCIT의 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두정일, 2010), ADHD 성향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어머니의 심리 및 상호관계에 미치는 PCIT의 효과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두정일 2014),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집단 PCIT 효과 연구(백지은, 2012)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PCIT 효과검증(두정일, 2018) 등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 역시 아동의 행동문제 감소,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의 감소와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와 더불어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극적이고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기에 PCIT를 통한 긍정적 경험이 문제행동의 감소와 부모-아동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가져온다면 애착이론에 근거한 CDI를 통해 부모에게 긍정적이고 양육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촉진시키는 기술들을 코칭하여 부모-아동 간의 관계를 재구조화(restructure)하고 아동에게 안정된 애착을 제공했을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다 할 것이다.

PDI를 배제하고 CDI만을 시행한 PCIT는 언어중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PCIT는 행동의 문제를 보이는 미취학아동(만2-7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수용언어가 2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PDI가 적합하지 않음(Eyberg, 1988) 때문에, 영유아의 경우 회기를 단축하고, CDI 기술 강조하는 대신 PDI 회기를 생략하는 등 PCIT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Kohlhoff & Morgan, 2014).

CDI만을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특정언어장애(s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를 가진 8~10세 학령기 아동에게 4주 동안 CDI를 제공하고, 5주 후에 놀이장면에서 평가해보았을 때 아동의 발화, 아동의 평균 문장길이, 부모의 말한 시간 대비 아동이 말한 시간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인 Allen & Marshall(2011)의 연구와 행동문제를 보이는 12-15개월 영유아의 집에 방문하여 부모에게 CDI 기술을 주1회 60분~90분 동안 5~7회 코칭한 결과, 직접 효과로 행동문제가 감소했고, 간접효과로 6개월 후 추후검사에서 총 발화량과 어휘의 다양성이 증가함을 보고한 Bagner, Garcia & Hill(2016)의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CDI만을 시행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놀이 주체자는 유아 자신이지만 놀이자인 유아의 행동은 주변의 인적,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놀이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므로, 가정환경의 특성에 따라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유아에게 있어서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놀이 상대자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유아의 놀이성 정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박주희, 한석실, 2007). 가족환경은 유아가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와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므로(Islay, Neil, Clafelter & Parke, 1999) 모가 유아의 욕구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와 유아의 서로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다(Ainsworth & Bell, 1974). 놀이성은 유아의 심리상태가 내재된 놀이 행동으로 유아기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사회성에 중요한 변인(Ellis, 1973; Mattews & Mattews 1982)이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 상황에서 모가 열정적으로 반영해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며 놀이를 모방해 주는 기술을 부모가 익히고 날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CDI를 실시하였을 때,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 유능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동주도 부모-아동상호작용(CDI)은 아동의 놀이성 향상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2. 아동주도 부모-아동상호작용(CDI)은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3. 아동주도 부모-아동상호작용(CDI)은 아동의 또래 유능성 향상에 효과적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싶은 4, 5세의 일반 아동과 그 아동의 모 5쌍을 모집하였다. PCIT는 부모-아동 한 쌍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표기는 편의상 아동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즉, PCIT 치료집단 5명의 표기는 실제 모 5명, 아동 5명으로 총 10명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참여자	아동			모			
	성	연령	출생순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경제력
연구참여자 A	남	5세	2남 중 둘째	30대	학사	프리랜서	중
연구참여자 B	남	4세	2남 중 둘째	30대	석사	프리랜서	상
연구참여자 C	여	5세	2녀 중 둘째	30대	학사	교사- 휴직 중	중
연구참여자 D	남	4세	2남 중 첫째	30대	학사	교사- 휴직 중	중
연구참여자 E	여	4세	2녀 중 둘째	40대	학사	강사	중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부모 대상은 모두 모였고 연령은 대부분이 30대(80%)였고 나머지 한 명 역시 40세로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였다. 모의 학력은 모두 대졸 이상으로 대학원졸업이상이 1명(20%)이었다. 모는 교사나 프리랜서로 모두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했고 2명은 연구시작 수개월 전부터 휴직한 상태이다. 가정의 경제력은 모의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80%가 중, 20%가 상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은 남아: 여아의 비율은 3:2로 남아가 1명씩(20%) 많았으며, 아동의 연령은 4세 3명(60%), 5세 2명(40%)이었다. 출생순위는 연구대상 모두 동성의 형제 자매를 1명씩 가지고 있고 첫째가 1명(20%) 둘째가 4명(80%)이었다.

2. 연구도구

가.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 시스템(Dyadic Parent-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 DPICS, 이하 DPICS)

DPICS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행동관찰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정일 과 이정숙(2012)이 수정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시스템 제3판(Dyadic Parent-Child Interaction Coding System-Third Edition; DPICS-III)의 아동주도 놀이(Child-Lead Play, CLP)상황에서의 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였다. DPICS 평가는 평가자가 관찰실에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코딩하는데, 부모와 아동은 작은 탁자, 의자2개, 타입아웃 의자, 큰 놀이감 상자, 5종류의 놀이감(예: 블록, 레고, 그림그리기, 퍼즐, 기차길, 소꿉놀이세트와 주차장 등)이 있는 놀이실에서 관찰이 이루어진다. DPICS 코딩은 일방경과 BTE보청기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된다. DPICS는 세 가지 기준 상황 - 아동주도 놀이, 부모주도 놀이, 정리 상황-에서 각각 5분 동안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코딩한다.

본 연구에서는 5분간의 아동주도 놀이상황을 통해 구체적 칭찬(Labeled praise; LP), 언어 반영(reflection: RE), 행동묘사(behavioral description; BD), 일반적인 말(neutral talk; NT), 직접명령(direct command; DC), 간접명령(indirect command; IC), 질문(Question; QU) 그리고 부정적인 말(negative talk; NT)의 횟수를 코딩하였다. 5분간 구체적 칭찬 10개, 언어 반영 10개, 행동묘사 10개, 지시+질문+부정적인 말 3개 이하, 부정적인 관심을 끄는 행동 무시하기, 아동의 놀이 따라 하기, 열정적이기를 사용하면 아동주도 상호작용 기술의 마스터 기준이 된다(이유니, 2013).

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유아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성향을 의미한다(심미영, 2018).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ieberman(1965)의 놀이성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 1991)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보완한 김영희(199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자발성(physical spontaneity- 4문항), 사회적 자발성(social spontaneity-5문항), 인지적 자발성

(cognitive spontaneity-6문항), 즐거움의 표현(manifest joy-5문항)과 유머감각(sense of humor-5문항)의 5개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놀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사회성 척도(Iowa Social Competency Scale : ISCS)

유아의 사회성은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과 규범, 가치 등을 습득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나가며, 타인과 효과적이고 만족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심미영, 2018). 유아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oll(1965)이 제작한 Vineland 사회성숙도 검사와 Pease, Clark과 Crase(197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측정 검사(Iowa Social Competency Scale : ISCS)등을 참조하여 김숙경(1988)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을 심미영(2018)이 교사용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성요인은 협동성, 타인이해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용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김숙경, 1988; Doll, 1991; Pease, Clark, & Crase, 1979). 각 요인별로 협동성 9문항, 타인이해성 7문항, 자율성 8문항 그리고 또래 간 상호작용 8문항의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 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 또래유능성 척도

‘또래유능성’은 유아기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것이며, 유아가 또래와 사회 상호작용 관계를 성공으로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Howes, 1987) 즉,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사교성, 친사회성과 주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하위 영역별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가. 설명회

연구 대상자에게 먼저 PCIT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진행 일정과 연구방법을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참여기간, 원할 경우 언제라도 중도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및 연구자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비디오 및 설문자료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 및 치료동의서와 면담 및 평가를 위한 부모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사전 평가

첫째,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 평가지를 참여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각각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15분간의 개별놀이에 나타난 참여 아동의 놀이성과 사회성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연구자가 관찰 평가하였다.

셋째, 모와 참여 아동간의 상호작용 평가에 나타난 모의 상호작용 특성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5분 동안 PCIT의 아동주도놀이상황에서의 치료 전과 후 평가용 DPICS 코딩 기록지로 평정하였다.

모든 평가는 PCIT Level 1 Trainer인 연구자와 PCIT 수련과정중의 연구자가 관찰 녹화용 비디오 카메라와 이어폰(bug-in-ear)설치가 되어 있는 Level 1 Trainer의 가족놀이센터에서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다. DPICS 코딩 결과 안내 및 PCIT의 CDI 교육

부모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 주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에 대해 안내한 후 PCIT를 소개하였다.

첫째, 모와 참여 아동 간의 상호작용 놀이 시 아동이 놀이를 주도하게 하며, 이 때 모는 구체적 칭찬, 언어반영, 놀이모방, 행동묘사 그리고 함께 즐기기의 다섯 가지 해야 할 기술(Praise, Reflect, Imitate, Describe, Enthusiastic; 이하 PRIDE기법)과 하지 말아

야 할 기술(질문, 지시, 비난이나 비판)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무시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연구자와 부모 간 역할놀이를 통해 기술은 연습하도록 하였다. 또한, 4주간 1주일에 한 번씩 연구자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모는 가정에서도 매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참여 아동과 코칭 받은 방식대로 5분 상호작용 놀이를 하도록 하고, 모와 참여 아동 간의 상호작용 놀이 시 사용되는 장난감은 블록, 레고, 그림그리기, 상호작용 놀이세트(기차길, 소꿉놀이세트, 주차장 등) 등으로 아동이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놀이가 가능한 것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아동주도 상호작용(CDI) 코칭

프로그램은 전체 7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및 CDI 교육회기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코칭은 4회기 동안 이루어졌다. CDI 교육 시간에는 아동은 참석하지 않고 모만 참석하여 CDI의 원리 및 기술을 소개하고 치료자와 역할놀이를 통해 습득하는 시간을 갖고 집에서 5분 놀이를 시행하는 숙제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점검하였다. CDI 코칭 시간에는 먼저 숙제와 가정의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한 후, 아동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과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DPICS-III에 코딩하였다. 코딩이 끝나면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술을 코칭 하였다. CDI 기술 코칭은 5분간의 가정에서의 특별놀이 시간에 부모가 아동에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과 철학을 사용하여 부모에게 구체적 칭찬을 하였다. 또한 전략적 관심과 선택적 무시하기를 사용하여 부모에 부정적인 언어는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언어 반응을 증가시켰다. 코칭이 끝나면 부모의 기술발전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다음 주 숙제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프로그램 진행 과정

단계	회기	내 용
사전평가	1	15분간 개별 자유놀이 평가 5분간 CLP상황에서의 DPICS 평가
CDI 교육	2	아동은 참석하지 않고 모만 참석 CDI 원리 및 기술 소개 - 행동묘사, 언어반영, 구체적 칭찬, 놀이 모방하기, 열정적 반응 ,

		즐기기 등 구체적 기술 교육 - 아동이 주도하도록 허용하기 - 질문, 지시, 비난 피하기, 무시하기 등의 기술 교육 치료자-부모 간 역할놀이를 통한 기술 연습 가정에서 매일 5분간 특별 놀이시간 갖기 안내
CDI 코칭	3-6	10분 - 숙제 및 기타 점검 5분 - CDI 기술 코딩 35분 - CDI 기술 코칭 10분 - 발전 상황에 대한 피드백과 숙제 내주기
사후평가	7	15분간 개별 자유놀이 평가 5분간 CLP상황에서의 DPICS 평가

마. 사후 평가

첫째, 놀이성과 사회성, 또래유능성 평가지를 참여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배부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각각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둘째, 15분간의 개별놀이에 나타난 참여 아동의 놀이성과 사회성을 프로그램 종료 후에 연구자가 관찰 평가하였다.

셋째, 모와 참여 아동간의 상호작용 평가에 나타난 모의 상호작용 특성을 프로그램 종료 후에 5분 동안 PCIT의 아동주도놀이상황에서의 치료 전과 후 평가용 DPICS 코딩 기록지로 평정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 코딩은 PCIT Level 1 Trainer인 연구자와 PCIT 수련과정중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질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 20명을 넘지 않아 정규 분포성을 가정하기 어려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의 짝을 이룬 부호순위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ngl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모의 CDI 기술 평가를 위해 DPICS를 PCIT Level 1 Trainer인 연구자와 PCIT 수련과정 중인 연구자가 공동으로 코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모-아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평가

모와 참여 아동의 아동주도 상호작용 사전평가 결과, 대부분의 모가 참여 아동과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언어사용(행동묘사, 언어반영과 구체적 칭찬)은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한 개도 없었으며 다른 세 참여자도 3개에서 8개의 사용에 그쳤다. 그에 반해 질문과 지시 또는 부정적인 언어사용이 많았다. 질문은 5분 동안 20-40개를 사용하였고, 지시와 부정적인 언어 사용 역시 0-9회 사용하였다. 모와 참여 아동의 아동주도 사후평가 결과,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은 연구 참여자 A는 36회, 연구참여자 B는 44회, 연구 참여자 C는 24회, 연구 참여자 D는 44개 그리고 연구 참여자 E는 29개로 늘었으며 부정적인 언어 사용은 0-4개로 줄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 DPICS- CDI 사전·사후평가

구분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E	
	사전	사후								
일반적인 말	6	13	20	5	16	6	14	7	7	7
행동묘사	0	8	0	15	0	18	0	5	0	13
언어반영	5	21	8	24	0	1	3	27	0	12
구체적 칭찬	0	7	0	5	0	5	0	12	0	4
일반적 칭찬	0	0	2	3	0	0	0	0	0	0
질문	30	0	20	1	30	3	40	1	28	1
부정적인 말	0	0	0	1	1	0	0	0	0	0
직접지시	0	0	0	2	2	0	1	0	3	0
간접지시	0	0	0	0	6	0	2	0	0	0

연구 참여자 A는 자존감이 낮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며 눈치를 많이 보고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피하고 자기를 꺾을 때까지 주변을 배회한다고 모가 보고하였다. 모-아동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면 모는 아동이 잘하나 지켜보고 잘해야 한다는 압력을 주지만 촉진자의 역할을 해 주지는 않았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과제를 수행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과제수행놀이의 교육자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 A는 모에게 의존하고 수동적으로 맞추는 놀이를 하였다. 이에 대한 코칭의 방향은 놀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설명하지 말고 아동의 행동을 반영해주고 유능감을 주는 구체적 칭찬을 하도록 하였다. 모는 가장 성실하게 가정에서 5분 놀이를 시행하였으며 코칭 3회기 만에 행동묘사 16, 언어반영 14, 구체적 칭찬 14 그리고 질문 2로 CDI과정을 마스터하였다. 사후 평가 시 아동은 모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수정되고 자기조절이 가능했으며 연구 참여자 A의 모는 아동과 친밀감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형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욕심이 많고 공격성이 있고 고집이 세다고 모가 보고하였다. 모-아동 상호작용의 특성은 경쟁적으로 유능해지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모는 장애를 가진 형에게 지시하고 안내하던 습관으로 인해 설명과 규칙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아동은 놀이 집중력이 짧고 전환이 빠르고 자신이 완성한 것에 대해 불만족하며 스스로 망치기를 반복하였다. 코칭은 규칙 없이 즐기도록하고 차분하게 행동묘사에 집중하고 아동의 관심사를 따라가며 어떻게 해줄까가 아닌 아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모는 코칭 3회기 만에 행동묘사 11, 언어반영 16 그리고 구체적 칭찬 10으로 긍정적인 반영은 마스터하였으나 질문과 지시가 7개로 3개 이하의 규정을 달성하지 못해 CDI 과정은 마스터하지 못하였다. 사후 평가에서는 모의 행동묘사와 언어 반영 속에서 아동이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C는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고 가정에서도 별 문제 없다고 모가 보고하였다. 모-아동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면 모는 질문을 통해 지시적이고 도전과제를 제시하여 수행하는데 초점을 둔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놀이를 간섭하면서 상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동은 주도성이 떨어지고 모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자기주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코칭의 방향은 아동이 좌지우지하면서 주도적으로 놀면서 자신의 유능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고 모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아동이 결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하도록 했다. 회기 내내 아동이 언어적 표현이 적었고 모가 구체적 칭찬을 어려워해 행동묘사를 제외하고는 CDI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하였다. 아동은 어린이집과 평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데 반해 가정에서 5분 놀이를 하자고 하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모가 보고 하였다. 사후 평가 시 아동은 표정이 밝아지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D는 겁이 많고 분리불안이 있으며 모에게 의존적이라고 모가 보고 하였다. 모-아동의 상호작용시 모는 질문과 설명을 많이 하고 과도하고 빠른 놀이개입을 하였고 아동은 모가 놀이과정에 대해 설명을 중심으로 놀이를 가르치며 상호작용할 때

겨우 따라갈 뿐 놀이에 흥미를 잃고 계속 다른 놀이로 전환하며 모의 반응에 집중하느라 자신의 의지로 놀이를 주도하지 못하였다. 코칭의 방향은 모가 정서적으로 놀이를 스스로 즐기도록 하며 모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모가 아동에게 집중하고 언어반영과 행동묘사로 따라가 주도록 하였다. 모는 가정에서도 5분 놀이를 적극 시행하였으며 주위에서 “D가 이렇게 잘 웃는 아이였어?”라는 반응이 많았고 아동이 모의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자기 표현이 확장되었고 함께 커 온 6명의 친구들과 같이 놀이 하는, 5년 만에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모는 코칭 4회기에 행동묘사 11, 언어반영 13, 구체적 칭찬 10, 지시 1 그리고 부정적인 말 1로 CDI 과정을 마스터 하였다. 사후 평가 시에도 모에게 “엄마 이거 할래?”라고 언어로 제시하는 등 언어적 표현이 많아졌다.

연구 참여자 E는 변비가 심해 종종 지리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회피적이라고 모가 보고하였다. 모-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모는 상호작용 없이 지켜보다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아동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아동이 원할 때에야 무언가 해 주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어떤 놀이할거야?” “엄마가 뭐 도와줘” 하며 즐거움 없이 놀이가 진행되자 아동이 텐트 안에 들어가 혼자 놀이 하다가 “엄마랑 놀이 재미없어”라고하며 나가자고 하였다. 코칭의 방향은 모가 아동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 일관적으로 제공되어 아동이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행동묘사와 언어반영 구체적 칭찬을 통해 열정적으로 상호작용해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가 직장일로 바빠서 가정에서의 5분 놀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였고 구체적 칭찬에서 CDI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하였다. 사후 평가에서 아동은 한가지 놀이감으로 모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놀이하였다. 일상에서는 모가 관심을 가져주자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리며 모의 간섭을 끌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고 또래 놀이시 상호작용 시도가 많아졌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빨라졌으며 모가 아동이 노는 것이 재미있어졌다고 보고하였다.

2. 놀이성

아동의 놀이성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놀이 시 신체기관 간의 협응이 잘 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신체자발성은 *P-value* 0.739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다. 이에 따라 신체적 자발성의 사전·사후의 변화는 차이는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므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할 때 친구의 접

근에 쉽게 반응, 협동적이며 친구를 쉽게 사귀고 놀이감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자발성,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하며 놀이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인 인지적 자발성, 놀이할 때 기쁨이나 즐거움, 열성,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와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운 즐거움의 표현,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하고 익살스러우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잘 웃는 유머 감각은 p -value 0.012, p -value 0.038, p -value 0.039, p -value 0.002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의 사전·사후 변화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가 평가한 사전·사후 놀이성의 사전·사후 평가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놀이성 사전·사후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Z	p-value
신체적 자발성	사전	4.10	0.85	-0.333 ^b	.739
	사후	4.05	0.76		
사회적 자발성	사전	3.28	0.89	-2.517 ^c	.012
	사후	3.72	0.89		
인지적 자발성	사전	3.23	1.17	-2.065 ^c	.039
	사후	3.53	1.04		
즐거움의 표현	사전	3.88	0.78	-2.070 ^c	.038
	사후	4.24	0.66		
유머 감각	사전	3.60	1.15	-3.127 ^c	.002
	사후	4.012	0.88		

$p < .05$

a.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c.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5> 연구 참여자에 따른 놀이성의 변화

구분		놀이성					합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연구 참여자 A	사전	19	14	11	18	18	80
	사후	18	17	14	24	21	94
	증감	-1	+3	+3	+6	+3	+14
연구 참여자 B	사전	19	18	25	20	25	107

구분	놀이성					합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		
	사후	19	21	28	21	25	114
	증감	0	+3	+3	+1	0	+7
연구 참여자 C	사전	19	19	24	21	17	87
	사후	14	22	26	20	21	103
	증감	-2	+3	+2	-1	+4	+6
	연구 참여자 D	사전	14	12	16	18	14
사후		14	16	19	20	16	85
	증감	0	+4	+3	+2	+2	+11
	연구 참여자 E	사전	14	19	21	20	16
사후		16	17	19	21	20	93
	증감	+2	-2	-2	+1	+4	+3
	합계	사전	82	82	97	97	90
사후		81	93	106	106	103	489
증감		-1	+11	+9	+9	+13	+41

각각의 연구 참여자별로 놀이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D가 14점, 11점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연구 참여자 E는 놀이성이 3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머감각이 13점, 사회적 자발성이 11점 상승하였고 신체적 자발성은 1점이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신체적 자발성의 항목 중 ‘놀이를 할 때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놀이를 할 때 많이 움직인다’, ‘놀이 할 때 각 신체 기관 간의 협응이 잘 된다’의 세 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오히려 감소되었다.

3. 사회성

아동의 사회성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놀이의 규칙이나 차례를 지키는 행동인 협동성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행동인 타인 이행성은 각각 P -value 0.063, P -value 0.37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다. 이에 따라 협동성과 타인 이행성의 사전·사후의 변화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므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집단생활이나 새로운 친구와 잘 어울려 지내는 행동인 또래 간 상호작용과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행동인 자율성은 1 0.028, p -value 0.02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또래 간 상호작용의 사전·사후 변화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가 평가한 사전·사후 사회성평가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연구 참여자의 사회성 사전·사후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Z	p-value	.003
협동성	사전	3.33	0.90	-1.860 ^b	.063	
	사후	3.60	0.96			
타인 이행성	사전	3.60	1.17	-0.892 ^b	.373	
	사후	3.74	1.01			
자율성	사전	3.45	1.13	-2.200 ^b	.028	
	사후	3.73	0.91			
또래 간 상호작용	사전	3.03	1.25	-2.270 ^b	.023	
	사후	3.33	1.25			

$p < .05$

a.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c.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7> 연구 참여자에 따른 사회성 변화

구분		사회성				합계
		협동성	타인 이행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용	
연구 참여자 A	사전	24	23	19	21	87
	사후	25	26	22	25	98
	증감	+1	+3	+3	+4	+11
연구 참여자 B	사전	33	18	31	34	116
	사후	35	19	32	35	121
	증감	+2	+1	+1	+1	+5
연구 참여자 C	사전	34	33	37	27	131
	사후	36	29	35	28	128
	증감	+2	-4	-2	+1	-3
연구 참여자 D	사전	27	27	25	16	95
	사후	31	26	31	19	107
	증감	+4	-1	+6	+3	+12

구분		사회성				합계
		협동성	타인 이행성	자율성	또래 간 상호작용	
연구 참여자 E	사전	32	25	26	23	106
	사후	35	31	29	26	121
	증감	+3	+6	+3	+3	+15
합계	사전	150	126	138	121	535
	사후	162	131	149	133	575
	증감	+12	+5	+11	+12	+40

각각의 연구 참여자별로 사회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E가 15점으로 가장 많은 증가를 하였고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D가 각각 11점과 12점 증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3점이 감소하였는데 유치원 교사로부터 “몇몇 장면에 따른 해석 때문에 사전 검사와 다르게 답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답변이 설문지와 함께 보고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협동성과 또래 간 상호작용의 경우 고르게 증가하였고 자율성의 부분에서는 연구 참여자 D가 타인 이행성에는 연구 참여자 E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4. 또래유능성

아동의 또래유능성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정한 결과, 또래에게 인기가 많고 여러 유아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인 사교성, 또래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인 친사회성, 또래에게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인 주도성 모두 P -value 0.52, P -value 0.130, P -value 0.157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다. 이에 따라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사전·사후의 변화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므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P -value 0.030으로 또래유능성의 사전·사후 변화는 유의미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다니는 유치원 교사가 평가한 사전·사후 또래유능성 평가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또래유능성의 사전·사후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Z	p-value	
사교성	사전	3.08	1.12	-1.941 ^b	.052	.030
	사후	3.36	0.81			
친사회성	사전	3.20	1.08	-1.513 ^b	.130	
	사후	3.44	0.82			
주도성	사전	3.04	1.24	-1.414 ^b	.157	
	사후	3.28	0.84			

$p < .05$

a.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c.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9〉 연구 참여자에 따른 또래유능성 변화

구분		또래유능성			합계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연구 참여자 A	사전	12	8	6	26
	사후	16	13	10	39
	증감	+4	+5	+4	+13
연구 참여자 B	사전	18	18	17	53
	사후	20	18	20	58
	증감	+2	0	+3	+5
연구 참여자 C	사전	21	19	20	60
	사후	19	21	17	57
	증감	-2	+2	-3	-3
연구 참여자 D	사전	8	15	13	36
	사후	11	15	17	43
	증감	+3	0	+4	+7
연구 참여자 E	사전	18	20	20	58
	사후	18	19	18	55
	증감	0	-1	-2	-3
합계	사전	77	80	76	233
	사후	84	86	82	252
	증감	+7	+6	+6	+19

각각의 연구 참여자 별로 또래유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A가 13점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연구 참여자 D와 연구 참여자 B도 각각 7점과 5점의 증가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3점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5. 연구 참여자에 따른 놀이성, 사회성, 또래유능성 사전·사후 평가

연구 참여자별로 놀이성과 사회성, 또래유능성을 사전·사후 변화 과정을 검정한 결과 연구 참여자 A와 D의 경우 세 영역 모두에서 *p-value*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사회성 영역에서만 *p-value* 0.001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연구 참여자 B와, 연구 참여자 C는 전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E의 경우에는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에서 *p-value*가 유의수준 0.05보다 크다. 이에 사전 사후의 변화는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므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에 따른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 사전·사후 평가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연구 참여자에 따른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 사전·사후 평가

	놀이성		사회성		또래유능성	
	Z	<i>p-value</i>	Z	<i>p-value</i>	Z	<i>p-value</i>
연구 참여자 A	-2.810b	.005	-2.057b	.040	-3.357b	.001
연구 참여자 B	-1.941b	.052	-1.508b	.132	-1.890b	.059
연구 참여자 C	-1.355b	.175	-0.550c	.583	-0.486c	.627
연구 참여자 D	-2.840b	.005	-2.355b	.019	-2.646b	.008
연구 참여자 E	-0.905b	.366	-3.273b	.001	-1.732c	.083

$p < .05$

a.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c.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6. 사전·사후 개별 자유놀이평가

연구 참여자 A는 상호작용 욕구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으로 관찰자의 관심과 칭찬에 긍정적 표현, 이기고 싶은 욕구가 나타났다. 놀이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찰하지 않고 먼저 쳐보거나 행동으로 익히는 등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는 데 미숙함을 보였다. 사후 평가 시에는 놀이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혼잣말처럼 하던 것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래요”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였다. 놀이 집중력이 높아져 한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놀이가 가능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관찰자의 설명을 듣지 않고 바로 놀이감을 선택하였으며 정서적으로 몹시 흥분된 모습이었다. 주로 경쟁놀이를 선택하여 관찰자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다. 스스로 놀이 규칙을 설명하지만 계속 어기고 이기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놀이 규칙을 변경하는 등 놀이 전환도 잦고 산만하게 놀이를 하였다. 사후 평가 시에는 게임 놀이를 선택하고 관찰자와 게임을 하기를 제안하였으며 관찰자와 함께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해 놀이 규칙을 지키며 한 가지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게임놀이를 선택하지만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제안하지 못하고 혼자 놀이하였다. 관찰자의 제안에 함께 게임을 할 때에도 감정변화나 승부에 대한 관심 없이 전반적으로 긴장과 조심스러움, 눈치 보는 행동이 많았으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후 평가에서 초반에는 놀이감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관찰자의 제안에 고개를 흔들며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게임 놀이감을 가져와 혼자 놀이하였다. 놀이관찰 시간이 2분 남았다고 하자 관심 있던 놀이감을 선택했고 관찰자가 자연스럽게 같이 동참하자 거부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했다. 게임을 하면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이지만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D는 놀이감을 들고 관찰자에게 다가와 놀이감을 밀어 놓기만 할뿐, 함께 놀자는 언어적 의사소통 없이 혼자 놀이 하였다. 상호작용 시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관심을 끌어내고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해주자 수동적으로 함께 놀이가 이루어졌다.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고 전환이 잦았다. 사후 평가 시에는 자신이 원하는 놀이감을 선택하여 오랜 시간 집중하여 관찰자와 놀이하였고 적절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설명하였고 즐거운 정서를 표현하며 놀이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관찰자의 설명을 잘 듣고 눈치를 살피며 놀이감 꼼꼼하게 살피고 선택하였다. 혼자 놀이를 하면서 집중도와 자발성이 높았으나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하였다. 관찰자의 질문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것 이외에는 관계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 관찰자를 마치 투명인간으로 대하는 듯 느껴졌다. 사후 평가 시에는 관찰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즐겁게 상호작용하며 한 가지 놀이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지속할 수 있었다.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늘어났고 관찰자의 제안에 반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아동의 아동주도 상호작용 치료의 효과를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질적 향상을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CDI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 또래유능성에서 그 효과성을 검정할 수 있었다. 놀이성의 경우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신체적 자발성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증가하였다. 사회적 자발성과 더불어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 감각의 정서적인 부분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CDI 코칭 후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보고가 많았고 “D가 이렇게 잘 웃는 아이였어?”라는 주위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와 참여 아동의 아동주도 상호작용 사전평가 결과, 대부분의 모가 참여 아동이 주도하는 놀이에 질문과 지시 또는 평가의 언어사용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아동의 놀이 집중을 방해하거나 놀이에 몰입하는 데 걸림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놀이할 때 보이는 이러한 부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은 오히려 아동의 놀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 역시 대부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보다는 이처럼 부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으로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간의 효과적인 아동주도 상호작용 놀이 방식을 코칭 받은 모는 부정적 상호작용 방식인 질문과 비난 및 지시가 줄어들고 구체적 칭찬, 언어반영, 모방놀이, 행동묘사, 함께 즐겁게 놀기가 증가되면서 참여아동은 사전평가에서 나타난 잦은 놀이전환에서 벗어나 한 가지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과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모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관계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김정숙, 2005; 박정연, 2009; 장은정, 2001; 장은주, 2000; 정지은, 2003) 부모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유아의 놀이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김수희, 2004) 연구와 모의 놀이참여와 역할수행이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심미영, 2018) 부모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임정빈, 2017)는 연구와 결과를 같이 한다.

둘째, 4회기의 CDI 코칭을 통해 연구 참여자 A와 연구 참여자 D 등 2명의 모가 CDI 기술을 마스터하였다. 그들의 아동은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전 영역에 걸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가 CDI의 긍정적 언어 사용은 마스터 하였으나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줄이지 못한 연구 참여자 B의

아동은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에서 유의미에 근접한 향상을 보였으며, CDI 기술을 마스터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E의 아동은 연구 참여자 E가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그 효과를 검정할 수 없었다. 이처럼 모의 CDI 기술 마스터에 따라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 유능성의 향상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볼 때 모가 CDI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 유능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마스터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구체적 칭찬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구체적 칭찬은 아동의 행동, 활동 또는 작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가 아동의 행동 중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칭찬하여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구체적 칭찬을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구체적 칭찬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 아동의 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해 줄 수 있을 때 부정적 행동에 대한 무시하기가 가능해지고 긍정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놀이성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연구 참여자 C의 경우에는 모와의 5분 놀이시간이 불편한 듯 평소에 비해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모가 보고하고 있다. 이는 코칭 상황에서도 모가 연기하듯 부자연스럽게 아동을 반영해주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유의미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CDI 기술을 완전히 체득하고 자연스럽게 아동과의 관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 유능성의 전체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놀이성의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유머 감각의 네 항목에서, 사회성에서 자율성과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검정되었고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성의 협동성과 타인 이행성 그리고 또래 유능성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검정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놀이성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사회성, 또래 유능성의 순으로 변화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을 스스로 수행하는 자율성과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와 잘 지내는 행동인 또래 간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놀이의 규칙이나 차례를 지키는 협동성과 또래에게 인기가 많고 여러 유아들과 고루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인 사교성에서 유의미에 가까운 변화를 보였는데 반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타인 이해성과 또래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는 능력인 친사회성, 또래에게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인 주도성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는 회기가 4회기로 단기이므로 자발적인 동기마련과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무리 없이 잘 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직 타인에게 구체적인 행동화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CDI 회기 동안에는 아동주도로 놀이를 펼쳐 가며 부정적인 상황을 조성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갈등을 해결해나가거나 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발현되도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의 놀이성이 높으면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김은숙, 2013; 심미영, 2018; 우수경, 2013; 조송림, 문혁준, 2013), 모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또래유능성도 높고(이상은, 이주리, 2010). 유아의 놀이성으로 또래관계에서의 취약성을 상쇄시켜 줄 수 있으므로(임희경, 2008).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과 즐거움의 표현 정도가 높아지면 유아의 또래유능성 전체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상은 과 이주리, 2010)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모든 모가 CDI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두고 코칭 한다면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검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놀이성 가운데 연구 참여자 E를 제외하고 신체적 자발성이 감소하였다. PCIT는 신체적 상호작용보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놀이성 증가와 놀이집중력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놀이하는 동안 활발하게 신체를 움직이거나 활동적인 놀이 보다 정적인 놀이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놀이성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적 자발성, 유머감각과 인지적 자발성은 또래유능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신체적 자발성은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윤지(2017)의 연구나 신체적 자발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부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김영희(1995)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은 연구 참여자 E가 유일하게 신체적 자발성이 증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놀이성 사후 평가에서 신체적 자발성과 더불어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에서 큰 증가를 보였고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연구 참여자 E는 모가 놀이에 참여해주지 않아 혼자 놀면서 다른 아이의 놀이에 들어가지 못하던 아동으로 CDI 코칭 후 모가 관심을 가져주자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리며 모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고 4세 때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말도 빨라지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모의 보고를 볼 때 억눌려 있던 자기표현이 드러나면서 신체적으로도 과잉 활성화 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CDI의 강점을 살려 국내외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의 효과를 검증한 점에 있다. CDI는 행동변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Eyberg, 1988)이므로 PDI 단계까지 시행하는 것이 임상적 수준의 문제행동을 아동을 다룰 때 효과적이며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한 아동의 변화를 검증하고 연구의 중요성 제시하였다. 또한 아동심리치료에 있어서 부모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장에 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상의 제한이 있고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객관적으로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아닌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의 사전·사후 설문지를 받았으나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항분석 및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모가 CDI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은 아동의 놀이성, 사회성과 또래유능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외 프로그램 요인 외의 요인들(정서, 성격, 사회배경, 가족체계 등)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므로 향후 다양한 요인과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부모-자녀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나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향 및 문제행동에 따른 편차가 있어 향후 외현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내현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준거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향후, 가정의 아버지 등 가족구성원의 설문조사도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Lieberman(1965)의 놀이성 정의에 기초하여 Barnett(1990, 1991)가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를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보완한 김영희(1995)의 놀이성 평가 중 하나의 항목인 신체적 자발성은 4문항으로 놀이 활동을 할 때 각 신체 기관 간의 협응이 잘 된다, 놀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인다, 놀이를 할 때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놀이를 할 때 많이 움직인다에 대해 5점 척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놀이성의 향상과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는 연구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시행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수희(2004). 부모의 놀이 참여수준과 유아 놀이성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1988). 외동이와 형제아의 모-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숙(2013). 유아의 성별과 놀이성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91-110.
- 김정숙(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지위 및 놀이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정일(2010). 파괴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두정일(2014). ADHD 성향 아동의 문제행동과 그 어머니의 심리 및 상호관계에 미치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PCIT)의 효과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0(2), 307-335.
- 두정일(2018).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CIT) 효과검증.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13(2), 51-71.
- 박정연(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2001). 취학 아동용 또래유능성 척도 개발에 한 연구. 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박주희, 한석실(2007). 유아의 놀이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7(2), 55-72.
- 백지은(2012). 집단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행동 문제를 보이는 아동 대상. 한국놀이치료학회, 15(1), 93-110.
- 심미영(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 놀이참여, 역할수행과 유아의 놀이성, 사회성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수경(2013). 어머니의 놀이성과 유아의 성 및 놀이성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열린 유아교육연구, 18(4), 263-283.
- 이상은, 이주리(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아동학회

- 지, 31(6), 71-85.
- 이정숙, 두정일(2008).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에 대한 고찰. 한국놀이치료학회, 11(2), 1-16.
- 임정빈(2017).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놀이참여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경(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주(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유아 내적 표상의 매개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은(2003). 어머니 양육태도와 정인지체아동 놀이성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송림, 문혁준(2013).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25-138.
- 최윤지(2017).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자아탄력성 및 놀이성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5(3), 173-202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4).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Connolly and J. Bruner(Eds.), *The Growth of Competence*. New York: Academic Press, 97-118.
- Allen, J., Marshall, C. R. (2011).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CIT) in 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t J Lang Commun Disord*, 46(4), 397-410.
- Bagner, D. M., Garcia, D., Hill, R. (2016).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behavioral parenttraining on infant language production. *Behavior Therapy*, 47(2), 184-197.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and Culture*, 4, 51-74.
- Bagner, D. M., Fernandez, M. A., & Eyberg, S. M. (2004).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chronic illness: A case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 Medical Sttings*, 11, 1-6.
- Bates, J. E., Bayles, D., Bennett, D. S., Ridge, B., & Brown, M. (1991). Origins of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at eight years of age.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93-119). Hillsdale, NJ: Erlbaum.
- Baumrind, D. (1966).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4), 887-907.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Calzada, E. J., Eyberg, S. M., Rich, B., & Querido, J. G. (2004). Parenting Disruptive Preschoolers: Experiences of Mothers and Fa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2), 203-213.
- Chase, R. M., & Eyberg, S. M. (2008). Clinical presentation and treatment outcome for children with comorbi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273-282.
- Cheryl, B. M., & Toni L, H. (2013).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이유니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0 출판).
- Choate, M. L., Pincus, D. B., Eyberg, S. M., & Barlow, D. H. (2005). Parent 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treatment of Separation Anxiety Disorder in young children: A pilot study.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2, 126-135.
- Doll, E. A. (1965).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Condensed manual of directions. Minesoca: American Guidance Service.
- Doll, E. A. (1991).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 Condensed manual of directions*. Minnesota: America Guidance Service.
- Eisenstadt, T. H., Eyberg, S., McNeil, C. B., Newcomb, K., & Funderbuka, B. W. (1993).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with behavior problem children: Relative effectiveness of two stages and overall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42-51.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J.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L: Scott, Foreman.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

- School Age &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Ellis, M. (1973). *Why people pla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yberg, S. M. (1988).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Integration of traditional and behavioral concern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10*, 33-46.
- Eyberg, S. M. (2005). Tailoring and Adapting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to New Population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8*(2), 197-201.
- Eyberg, S. M., Nelson, M. M., Boggs, S. R. (2008). 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ruptiv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7*(1), 215-237.
- Eyberg, S. M., Nelson, M. M., Duke, M., & Boggs, S. R. (2012).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 시스템 매뉴얼(두정일, 이정숙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4 출판).
- Eyberg, S. M., Schuhmann, E., & Rey, J. (1998). Psychosocial treatment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issu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345-357.
- Gat, T. (2007). Effectiveness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dministered in Spanish to Spanish-Speaking Latino Clients. Master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Howes, C. (1987).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No. 217).
- Islay, S. L., O'Neil, R., Clafelter, D., & Parke, P.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 Psychology, 35*(2), 547-560.
- Kohlhoff, J., & Morgan, S. (2014).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toddlers: a pilot study.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6*(2), 121-139.
- Lieberman, J. N.(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9-224.
- Masse, J. J., McNeil, C. B., Wagner, S. M., & Chorney, C. B. (2007).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high functioning autism: A conceptual overview. *Journal of Early and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 4*(4), 714-735.
- Matos, M., Bauermeister, J. J., & Bernal, G. (2009). Parent Child Interaction Therapy

- for Puerto Rican Preschool Children with ADHD and Behavior Problems: A Pilot Efficacy Study. *Family Process*, 48(2), 232-252.
- Mattews, W. S., & Mattews, R. J. (1982). Elimination operational definition : A paradigm case approach to the study of fantasy play. In D. F. Pepler & K. H. Rubin(eds), *The poay of children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basel.*(Eds), Switzerl-and: Karger.
- McDiarmid, M. D., & Bagner, D. M. (2005).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children with disruptive behavior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8(2), 130-141.
- McNeil, C., Capage, L., Bahl, A., & Blanc, H. (1999).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Comparison, of treatment and waitlist control group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 445-454.
- Mcrae, R. E. (2003). The treatment of child neglect through a comprehensive service strategy including home-based therapy, play therapy, parent education, and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3, 3930.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Castalia.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 School Age & Preschool Manual*.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Phillips, J., Morgan, S., Cawthorne, K., Barnett B. (2008). Pilot evaluation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delivered in an Australian community early childhood clinic setting.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8), 712-719.
- Thomas, R., & Zimmer-Gembeck, M. J. (2007). Behavioral outcom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d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review and meta-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3), 475-495.
- Urquiza A. (1996).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n intensive dyadic intervention for physical abusive families. *Child Maltreatment Vol. 1*(2), 134-14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Directed Interaction (CDI) on Children and Mothers of 4, 5 Years

Lim, Sun-ja · Sunwoo, Hyun
Naraeul Children's Counseling Center ·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parent - 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this, we conducted a CDI (Child-Lead Interaction) that is part of the PCIT for children and mothers aged 4 to 6 years old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sociality, and peer competence I want to see. The study was conducted on five mother - child pairs who w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ent - child interaction. The four week CDI program was directly coached by five parents and evaluated as a DPICS coding paper for pre - and post - treatment evaluation in the child - led play situ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kindergarten teachers attending the children, the children's playfulness, sociality and peer competence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DI coaching of PCIT has significant effects on playfulness, sociality and peer competence.

Key Words: Child-Directed Interaction(CDI),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playfulness, sociality, peer competence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아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8만원(급행논문 심사비 12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자. 『통합치료연구』는 연2회 발간(2월 25일, 8월 25일)하고 있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중고딕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진하게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1줄 띄고 3칸에서 시작, 11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사이
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
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
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 “...”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
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
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
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 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수여대학. 학위명.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 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예술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심리치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 치료, 예술심리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정지)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3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위원장 : 1명
6. 학제 간 연구위원장 : 1명
7. 편집위원장 : 1명
8. 국제교류위원장 : 1명
9. 윤리위원장 : 1명
10. 홍보위원장 : 1명

제14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8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9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위원장, 학제 간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윤리위원장, 홍보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20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1. 편집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2. 국제교류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3. 학제 간 연구 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모델 연구
4. 홍보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대외협력 및 홍보

5. 학술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2) 임무 : 학술발표, 세미나, 교육특강 등 주관 및 교육

제5장 회 의

제22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운영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6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시 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 연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은 2017년 3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편집위원 : 김은연(명지대학교)
최예린(명지대학교)
손보영(선문대학교)
이상진(평택대학교)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박정환(제주대학교)
서근원(대구카톨릭대학교)
Dr. Felicity Baker(The University of Melbourne)

통합치료연구 제10권 제1호

2018년 8월 25일 인쇄
2018년 8월 25일 발행

발행인: 박은선 (한국통합치료학회)
(우)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경상관 4626호
Tel: 02-300-0880
E-mail: ksit@naver.com / ksit_journal@naver.com
인쇄처: 동문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